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MULTI-SITE CHURCH PLANTING STRATEGY FOR THE KOREAN BAPTIST CHURCH IN NORTH VIRGINIA

written by

SANG YUN SHI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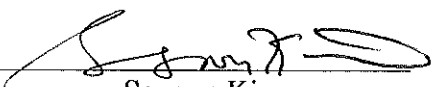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ung Keun Park


Jin Ki Hwang


Seyoon Kim

April 24, 2009

**A MULTI-SITE CHURCH PLANTING STRATEGY
FOR KOREAN BAPTIST CHURCHES
IN NORTH VIRGINIA**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ANG YUN SHIN

APRIL 2009

다중지역교회 전략을 통한 교회 개척의
활성화: 북 버지니아지역 한인 침례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박성근 교수

신상윤

2009년 4월

Abstract

A Multi-Site Church Planting Strategy
for Korean Baptist Churches in North Virginia

Sang Yun Shin

Doctor of Ministry

2009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r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strategies for multi-site church planting of Korean Baptist churches in Northern Virginia, which can provide a new paradigm for church planting and growth. For churches that face the difficult reality of church planting and stable growth, chapter 1 introduces the multi-site church as an alternative. The paper then proceeds in five more chapters.

To obtain a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church, chapter 2 examines the theology found in the New and Old Testaments and examines core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as the people of God and the body of Chris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ly Trinity. Then after presenting a theological summary and the biblical principles of the church, the chapter examines the need for church planting, as seen in the book of Acts and the early churches.

Chapter 3 studies practical principles of church planting based on this biblical understanding and from the perspective of actual ministry. It suggests the importance of prayer and vision, research and outreach strategies for target groups and target areas, and ways to develop a core group and small groups within the church. The chapter also proposes methods of formulating a master plan and concrete steps of a pioneering church.

Chapter 4 focuses on the theories of multi-area churches and the possibility of church planting based on these. It studies the principles followed by the apostle Paul in the New Testament and those of the early church and modern churches, then goes on to examine and analyze the literature on multi-site churches. Finally,

it summarizes various strategies for planting multi-site churches that can be applied in Northern Virginia.

Chapter 5 examines various situations of churches in Northern Virginia. It analyzes the flow of church planting and observes non-independent pioneering churches and their ministers, specifically suggesting possible trial churches that are ideal for applying strategies of multi-area churches. Chapter 6 then comes up with a master plan, from the preparation phase, for a given mid-sized church in Northern Virginia. The plan is very specific, including an introduction, objectives, guideline principl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 minister, strategic approach, research on and analysis of target groups, and even the inaugural worship.

In conclusion, since church planting in this day and age needs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strategies, the author focuses on seeking ways to successfully plant a church that grows and becomes independent in this pluralistic twenty-first century. While challenging, the author insists on the encouragement offered by strategic multi-area church planting.

Theological Mentors: Sung Keun Park, PhD
 Jin Ki Hwang, PhD
 Seyoon Kim, PhD

감사의 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항상 은혜와 지혜를 베푸셔서 시작한 학업을 끝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바쁘신 목회 가운데서도 항상 시간을 내어 주시며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신 박성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마지막 과정을 위해 꼼꼼하게 지적하고 가르쳐주신 황진기 박사님께도 감사합니다.

큰 아들의 목회와 학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신영기 권사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인 큰 사위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어려울 때 항상 격려해 주시는 백형희 권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목회의 동역자로 필요할 때 지혜의 충고와 쉬지 않는 중보기도 그리고 따듯한 격려를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편의 학업을 자랑스러워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고 내조한 사랑하는 아내 신경순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아빠를 이해하고 바르게 자라준 두 딸 은혜와 지혜, 그리고 외아들 영광이 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본 논문의 편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풀러 신학대학원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월 신상윤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개요와 한계	4
제 2 장 교회개척에 대한 이해	6
제 1 절 교회의 정의	6
1. 구약에서의 말하는 의미	6
2. 신약에서 말하는 의미	7
제 2 절 교회의 특성	8
1. 하나님의 백성	8
2. 그리스도의 몸	9
3. 성령의 전	10
제 3 절 교회의 기능	10
1. 주요기능	11
2. 교회의 중심사역	11
제 4 절 교회개척의 이해	12
1. 교회개척의 정의	12
2. 성경에서 살펴본 교회개척	13
제 5 절 교회개척의 필요성	15
1. 교회개척의 중요성	15
2. 교회개척의 유용성	16
제 3 장 교회개척의 주요 원리들	18
제 1 절 교회개척과 기도	18
1. 개척자의 기도생활	18

2. 중보기도 팀 개발	19
3. 기도하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	20
제 2 절 교회개혁을 위한 비전	20
1. 비전의 중요성	21
2. 비전 개발하기	22
3. 비전을 교회개혁에서 목회사역에 적용	23
제 3 절 교회개혁과 핵심가치	25
1. 핵심가치의 정의	26
2. 핵심가치 개발하기	26
제 4 절 교회개혁과 사역대상 연구	27
1. 사역대상 그룹연구	28
2. 사역대상 지역연구	29
제 5 절 교회개혁과 전도사역	31
1. 전도전략의 필요성	31
2. 전도전략 만들기	32
제 6 절 교회개혁과 소그룹	34
1. 소그룹의 정의	34
2. 소그룹의 특징	35
3. 소그룹의 활동요소	36
4. 소그룹사역의 유익	36
5. 소그룹리더의 자질	37
6. 소그룹의 운영원리	38
제 4 장 다중지역교회의 성경적 이해	40
제 1 절 다중지역교회의 정의	41
1. 정의	41
2. 성서적 고찰	42
3. 신학적 고찰	42

제 2 절 성경에서 살펴본 다중지역교회의 이론들	43
1. 복음서신서에서 본 다중지역교회이론들	43
2. 사도행전에서 본 다중지역교회 이론들	44
3. 바울 서신서에서 본 다중지역교회 이론들	45
4. 역사에서 본 다중지역교회 이론	46
제 5 장 다중지역교회에 대한 연구	47
제 1 절 문헌에서 살펴본 다중지역교회론 원리와 방법	47
1. 용어의 이해와 도움	47
2. 다중지역교회의 특징	49
3. 다중지역 교회론에 관한 대표적 문헌소개	49
제 2 절 다중지역교회 사례 관찰과 분석	51
1. 시카고 커뮤니티 교회	51
2. 맥클린 바이블 처치	52
3. 미주의 한인교회-헬로십교회	54
4. 다중지역교회 사역을 하는 한국교회들	55
제 3 절 다중지역 교회론의 대한 정리	56
제 4 절 다중지역 교회론을 응용한 개척교회전략	57
1. 버지니아 주 총회전략 보고서	57
2. 다중지역교회 전략을 통한 교회개척	58
제 6 장 북 버지니아 지역 한인침례교회개척 상황	60
제 1 절 북 버지니아 지역상황	60
1. 주위의 사회적 환경	60
2. 한인교포사회의 발전	61
3. 한인교회의 발전과정	61
제 2 절 북 버지니아지역 한인 침례교회 개척교회 현황	62
1. 침례교회 개척초기(1970년대 말 이전)	63

2. 침례교회 발전기(1970년 말부터 1990년 초까지)	63
3. 침례교회 안정기(1990년대 이후)	64
제 3 절 성공적인 교회개혁과 실패사례 분석	65
1. 성공한 교회 사례들	65
2. 실패한 교회 사례들	67
제 4 절 새로운 교회 개혁의 패러다임	68
1. 교회개혁의 필요성	68
2. 교회개혁의 새로운 대안	69
제 7 장 북 버지니아에 다중지역 교회론을 적용한 교회개혁 전략	72
제 1 절 다중지역 교회개혁을 위한 준비	72
1. 다중지역 교회 개혁에 대한 관심	72
2. 다중지역교회 연구모임 구성	74
3. 다중지역교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원리	77
제 2 절 필그림 교회를 중심으로 다중지역 교회개혁을 위한 총체적 계획	82
1. 서론	82
2. 계획을 만드는 목적	84
3. 지침 원리	84
4. 사역자의 역할과 책임	86
5. 전략적인 접근	87
6. 사역대상지 연구와 분석	88
7. 창립예배	89
8. “센터빌 캠퍼스” 일차적 주요사역	91
제 3 절 다중지역 교회개혁 준비부터 창립까지 진행 시간표	92
1. 준비부터 창립까지 주요 행사 시간표	92
2. 단계별 점검	93
제 8 장 결론	94

제 1 절 요약	94
제 2 절 제안	96
참고문헌	98
Vita	10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동기와 목적

그 동안 한국교회는 경이적인 교회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리고 많은 대형교회들의 출현과 많은 기독교인 숫자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각 주요 개신교단마다 교회성장의 둔화를 걱정하면서 많은 교회들은 교회성장의 침체를 경험해야만 했다. 지난해 통계는 교회지도자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위기감마저 더하여 주었다. 2005년 한국 통계청 인구조사에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종교인구는 10여 년 전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전 국민의 51.3%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의 인구는 오히려 1.4%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10여 년 전 기독교인구가 876만에서 8백61만 6천명으로 14만 4천명이 줄어든 것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불교는 3.9% 천주교는 74.4% 증가였는데 유독 기독교 인구만 감소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기독교는 성장주의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오늘의 현실은 기독교인의 수의 감소이다.¹⁾ 아이러니 한 사실은 과거 20년 동안 개교회의 숫자, 목회자 그리고 소위 대형교회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개신교 전체 교인의 수는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위기는 직접적으로 한국교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미주의 한인교회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례로 본인이 소속된 미국 남침례 교단 소속 미주한인침례교회는 지난 10년간 400여개 교회에서 722개로의 숫자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오늘 현재 대부분 교회들은 매주일 출석인원이 30-40명 미만인 소형교회이고 이런 소형교회들도 심한 교인 증감의 둔화와 교회성장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교인이 증가하는 대다수의 대형교회도 결국 중소형 교회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통한 교인

1) "사설," *침례신문*, 2006년 7월 7일자, 2면.

양적 증가 현상의 결과라 하겠다.²⁾ 또한 지난 수년간은 교회개혁에 있어 큰 어려움의 시기였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극단적인 인식이 일반화되는 시대에 있다.

필자는 북 버지니아 지역 2곳에서 17년간 이민목회를 해왔고 지난 30년 동안 이민교포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민 1세 교포다. 이런 배경은 누구보다도 이민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였다. 필자는 1970년대 말 한국교회부흥운동의 영향으로 개혁된 한 버지니아 이민교회의 부흥 전도 집회에서 회심하였다. 1980년대에 교포사회의 이민교회들은 고속도 성장시대를 맞보았고 1990년대부터는 수많은 개혁교회 출현으로 인한 개교회 숫자의 양적팽창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2000년대에는 교회성장이 크게 둔화되어 20년-30년 전 개혁되어 성장하던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는 현상들을 목격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90대초에 신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개혁자로 목회를 시작하고 영어권 2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교회를 개혁하여 독립시켜 주었다. 그 후로 10년 동안은 영어권, 스페인어권, 한어권 회중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 교회의 목회자로서 독특한 목회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은 새로운 개혁교회를 돌보는 교회성장과 개혁 전략가로서 사역하면서 이제는 교회개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필자는 5년 전부터 남침례회 버지니아 주총회의 부름을 받아 한인교회들을 돌보며 아시아권 교회개혁전략가로 사역하고 있다. 교회개혁자와 개혁교회를 돌보는 담당자로서 그 동안 경험과 관찰을 통해 교회개혁시의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개혁교회의 한계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오늘 현재 미국의 수도 워싱턴 근교 북 버지니아지역은 교회개혁과 성장의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많은 목회자와 교단 지도자들도 인정하는 현실이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개혁한 지 수년이 지난 교회들도 자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민초기에는 교회 개혁자와 그 가정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많은 전도가 이루어졌고, 교인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자립하고 부흥하였다. 또 많은 비신자들이 미국생활 정착과정 속에서 교회를 찾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신앙입문으로 이민교회가 활성화 되었으며, 후에는 이민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다. 또한 성장한 교회들의 내부 갈등

2) 미주 한인 침례교 협의회, 2005-6 침례교회목회자수첩.

등과 분열이 새로운 교회개척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위의 많은 교포들과 교회지도자들까지도 교회개척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개척교회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교회개척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이미 지나치게 많은 수의 개척교회가 있다. 모든 조건을 갖춘 교회들이 많은데 꼭 개척교회를 갈 필요는 없다. 개척된 지 수년이 되어도 자립하지 못한다. 개척교회 목회자가 너무 많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일꾼도 없는 개척교회에 가면 교회사역을 많이 해야 하기에 고생한다.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다.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나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 개척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거나 건물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정적인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지금이 시대에는 새로운 예배 장소조차 얻기 힘들다. 이렇게 수많은 이유로 개척교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³⁾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될 수 없는 것이 교회개척이다. 교회개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우리 기독교인의 궁극적 사명이다.⁴⁾ 교회개척 전략가로 사역하면서 이런 동기를 갖고 사명감으로 개척자 훈련을 인도하고, 개척교회들을 방문하며, 많은 목회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였다. 특별히 많은 한인교포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많은 한인교회들이 밀집되어 있는 북 버지니아 지역의 침례교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개척이 어려운 이유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교회개척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며 교회개척과 성장의 활성화 방법들을 찾아보았다.

본 필자의 구체적 교회개척 활성화 방안은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정립되었다. 교회개척 이론정립의 기초가 된 것은 새들백교회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컨퍼런스’를 통해 배운 교회개척의 필요성과 준비과정이었다. 다양한 교회개척 이론은 풀러 신학교 밥 로간 교수의 ‘교회 개척론’ 강의를 통해서 습득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연적 교회성장’에 대한 이론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회성장에 대한 개관적 평가를 가능케 하는 좋은 지침이 되었다. 여러 종류의 교회개척에 대한 좋은 책들을 정독하면서 교회개척의 새로운 관점과 방안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인에

3) 김용수, “늘어가는 한인 교회수,” *Korean Monitor*, 2004년 10월호, 42.

4) 마태복음 28장 19-20절.

게 가장 결정적인 도전을 준 것은 '다중지역교회(Multi-Site Church)'전략, 즉 2-3년 전부터 버지니아 주총회 안에서 추구하기 시작한 새로운 교회개척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대형교회들의 교회활성화 전략으로 연구되었지만, 몇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면 미주 교포사회의 한인교회의 개척과 성장에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북 버지니아 지역은 미국의 수도권이고 훌륭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미주 한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주거지역 중 하나이다. 당연히 많은 한인교회들이 이 지역에 개척되었고 지금도 개척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가는 개척교회들의 자립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편이다. 또한 개척교회가 많다고 말하나 아직도 많은 한인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시작된 초대교회 이후 새로운 많은 교회들이 계속 개척되어 왔고 앞으로도 개척될 것이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바뀔 수 없다. 단지 방법만이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개척에 관심을 갖고 한계성에 부딪쳐 있는 이민교회개척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목적이다. 즉, 새로운 대안의 개척이론을 찾아보고 그 이론을 북 버지니아 지역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개척교회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 대안 하나가 미국 기독교 교계에 새롭게 시도되는 교회개척과 성장운동이며 미 남침례회 버지니아 주에서 전략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다중지역교회 전략이다.⁵⁾

제 2 절 연구개요와 한계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교회개척에 대한 신학적 정리를 위해 성경적 관점에서의 교회의 정의와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신학적으로 점검하고, 교회개척에 대한 기본적 이론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개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정리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실천적인 목적으로 교회개척에 대한 원리와 방법들을 비교하고 찾아 볼 것이다. 여기서는 교회개척 사역현장에서 필요한 원리들을 우선으로 하여 실제 교회개척의 실천적인 면을 살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논문 연구의 중심 이론인 다중지역 교회론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논하고, 타당한 근거와

5) 버지니아 침례교회 주총회, 선교국, 2001 전략 보고서 (2001년 11월).

원리가 부합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다중지역교회 이론을 여러 문헌에서 살펴보면서 다중지역교회 이론을 응용한 교회개척의 대안을 제시하여 보고자한다. 여기서는 몇 가지 교회개척 방법을 비교하면서 현재 교회개척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다중지역 교회이론을 소개 할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와 현장방문을 채택하였다. 현장방문으로는 시카고 커뮤니티 교회, 버지니아의 맥클린 바이블교회를 선택했다. 이와 함께 다중지역 네트워크 세미나 참석, 교회성장 전문가와 대담, 그리고 북 버지니아 지역 다중지역교회에 대한 구체적 관찰을 할 것이다. 6장은 연구대상이고 적용대상인 북 버지니아 지역 환경과 한인교회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특별히 개척교회의 현재 모습을 예리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한다. 과거의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버지니아의 남침례교 한인교회들을 전망해 보고자한다. 7장에서는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교회개척을 살펴 볼 것이다. 다중지역 교회론을 응용한 새로운 교회개척 이론을 북 버지니아 한인침례교회 목회자들에게 적용하여 교회 개척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여러 교회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교회개척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록 이 논문이 초보적인 이론 단계이지만 매우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연구의 범위를 북버지니아 지역의 한인침례교회로 한정한다. 그리고 필그림 교회를 다중지역교회 전략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아직 계획단계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 실행과 평가의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것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아직까지는 충분한 검증으로 확실한 결과를 갖고 결론을 내기에 매우 조심스러우나, 현재 교회개척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필요한 상황에 비추어 전개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주한인교회들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한 교회개척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모델이 나오기를 바란다.

제 2 장

교회개혁에 대한 이해

제 1 절 교회의 정의

교회개혁의 올바른 이해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교회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회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연하게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에 토대가 된다. 더 나아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교회개혁이 필요한가를 성서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해답을 찾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교회개혁의 출발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앞으로 시작할 교회개혁 방향설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정의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1. 구약에서 말하는 의미

구약성서에서 교회라는 낱말에 해당하는 용어는 “카할”과 “에다”가 있다. “카할”이란 단어는 본래 “부른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로서 “의논하기 위하여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이다.⁶⁾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 기슭에 모인 회중을 “카할”(총회)라고 불렀다(신 4:10; 9:10; 23:1-2). 이 용어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집단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또 다른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는 “에다”인데, 이 용어는 “지정하다” 혹은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만나다”라는 의미로서 지정에 의한 모임을 뜻한다. 이 용어는 ‘교회가 지명되어온 특별한 사람들만의 모임’이란 사실과 더불어 모임의 장소까지 포괄하는

6) 이종성, *교회론 (1)*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2), 20.

개념을 보여준다. 이 말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을 때에 그것은 사람들이 회집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나 국가의 대표자들로 형성된 사회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카할”은 정확히 말해서 백성들의 실제적인 회집을 뜻한다.⁷⁾ “카할”과 “에다”는 70인 역의 처음부분(모세5경)에서는 다 같이 공회(Synagogue)를 의미하는 말로 번역되었으나, 나중 부분에서는 “카할”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된 반면, “에다”는 “쉬나고게”라는 말로 번역되면서 신약성서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길을 터놓았다.⁸⁾ 그래서 “카할”은 이스라엘의 모임(공동체)을, “쉬나고게”는 모이는 장소를 더 강하게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구약 언어적으로 교회의 의미를 살펴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중(공동체)과 그들의 집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신약에서 말하는 의미

신약성서에서는 70인경에서 유래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에클레시아(εκκλησία)이고 다른 하나는 “쉬나고게”이다. 에클레시아(εκκλησία)는 “에크(εκ)”와 “칼레오(καλεω)”의 합성어로 “불러내다”를 뜻하며,⁹⁾ “쉬나고게”는 “모으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복음서나 바울서신에 있어서 “에클레시아”는 자주 나타나나 “쉬나고게”는 4복음서 중에서 3번 나타나고 있다(마16:18; 18:7).¹⁰⁾ 바울은 “에클레시아”란 말을 자주 사용했으며 결국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모임을, “쉬나고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과 장소를 의미하게 되었다. 신약의 성도들이 이미 유대인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회당(Synagogue)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예수가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거의 구약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말한다.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침례(세례)를 받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신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옛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식하였으며 자신들의

7) Louis Berkhof, *교회론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13.

8) 이종성, *교회론 (1)*, 21.

9) Berkhof, *교회론*, 14.

10) *The Revell Bible Dictionary*, Lawrence O. Richards, ed. (Wynwood: Fleming H. Revell Company, 1990), 219.

회집을 구약의 시내산 총회(Assembly)를 계승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인식하였다.¹¹⁾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뮐러(Mueller)는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모으시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다.¹²⁾ 결국, 교회는 육체를 지닌 인격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루어진 예배 공동체이다. 이 새 생명의 공동체는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인격적 공동체이다.

이와 같이 교회는 장소와 지역을 지닌 구체적인 모임임과 동시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세상에서 주님과 그의 구원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보편적 교회와의 일체성 속에 있다. 즉 교회는 건물을 지칭함이 아니라 불러내심을 받은 무리로서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무리들이다. 교회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즉 하늘과 땅위에 있는 모든 신자들(엡 1:12; 3:10; 골1:18)을 말한다.

제 2 절 교회의 특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무리로서 역사적, 현실적 공동체로서의 특성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교회의 모습을 삼위일체론에 함축하고 있다. 바울은 교회의 특성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삼위 하나님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영적 유기적 공동체로 묘사 하였다.

1. 하나님의 백성

바울은 신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을

11) Edmund P. Clowney, *교회 (The Church)*,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31.

12) Millard J. Erickson, *교회론 (The Doctrine of Church)*,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33.

지칭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인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무리들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어 진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창 12:1-2).”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것은 구약 전체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¹³⁾

2. 그리스도의 몸

바울이 가장 자주 사용한 교회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4:4; 5:23-30). 이것은 교회를 비유한 가장 많이 사용된 성서적 표현이다.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를 말한다. 우주적인 의미에서 본 교회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공동체는 미래에 그 안으로 속하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¹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교회의 일체성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다.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 연결되고 지체 간에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모퉁이돌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연결되어 지어지는 유기체적인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우주적인 것이며 이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골 3:11).¹⁵⁾

폴 미니아는 “신약교회에 나타난 교회이미지(Images of the Church in New Testament)”에서 교회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된 96개의 단어들을 통하여 교회

13) Erickson, *교회론*, 34.

14) Henry C. Thiessen, *조직신학강론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642.

15) Erickson, *교회론*, 36.

가 주님과 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는 몸(교회)의 머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다(골 1:18). 둘째, 교회는 많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고전 12:14; 18,25). 셋째, 모든 지체는 몸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고전 12:22). 마지막으로 몸은 교회다(고전 12:27-31). 이런 4가지 특성은 성숙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수적요소라는 것이다.¹⁶⁾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일체성을 말한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다.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각기 다름을 인정하며 지체로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교회가 된다.

3. 성령의 전

바울의 삼위일체 교회 개념 가운데 나머지 하나는 성령의 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다(고전 3:16). 에베소서 2장 21-22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 말한다. 성령께서는 교회에 내주하고 계신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개별적으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의 모임 안에 공동으로 내주해 계신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교회의 주관자다. 성령은 교회지체들에게 다양한 직분을 나눠주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한다.¹⁷⁾

제 3 절 교회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존재하는데 있지 않고 주님의 의도를 성취하는데 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어떤 기능을 감당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는 교회의 주요기능을 살펴보겠다.

16) William H. Chadwick, *양 도둑질 (Stealing Sheep)*, 전의우 역 (서울: 규장, 2002), 55-60.

17) Erickson, *교회론*, 40.

1. 주요기능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슨은 그의 조직신학 저서 ‘교회론’에서 교회의 주요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분류했다.¹⁸⁾ 첫째는 전도이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말씀의 강조점이 바로 전도이다. 전도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성도의 의무다. 따라서 회심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지역전도와 교회확장, 그리고 세계선교는 동일한 것이다. 두 번째 주요기능은 성도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거듭 건덕(健德)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엡 4:12). 교회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방법을 교제(fellowship)라고 한다. 신약성경은 사도행전 5장에서 코이노니아(koinwvia)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또 다른 교회의 기능은 덕을 세우는 교육이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과정도 하나의 교육 방법이다. 세 번째 교회의 주요기능은 예배이다. 건덕이 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배가 전도의 목적을 위해 불신자에게만 집중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은 소홀하게 될 것이다. 모든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음주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기능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다. 그리스도의 대명령(마 22:37-40)을 실천하는 신앙은 교회에 집중된 관심과 열정을 교회 밖으로 나누어야 한다.

2. 교회의 중심사역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시초부터 선언하시기를 자신은 복음전파를 위해 기쁨 부으심을 받았다고 하셨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복음전파 사역을 계속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행하는 사역의 중심에는 복음전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침례(세례)와 시험을 받으신 후 첫 번째로 행하신 활동이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나라가 가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 사도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신 일에 집중되

18) Erickson, *교회론*, 61.

어 있다고 서술했다.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의 참된 인성,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 그의 장사되심, 부활 후 계속하여 나타나심, 그리고 미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심 등이다. 바울의 견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선포했다.(롬 15:19; 고전 9:12; 고후 2:12; 9:13; 10:14; 갈 1:7; 빌 1:27; 살전 3:2). 복음은 단순히 신학적인 진리들과 역사적인 나열이 아니라 모든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장벽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닌 생명의 메시지이다(롬 1:16; 갈 3:28; 유 3절). 복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느 때나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복음전파이다. 복음이 변질하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다.¹⁹⁾

특별히 밀라드 에릭슨은 교회의 주요기능적 역할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어떤 태도나 자세로 행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그 이름을 지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성육신해 계시는 동안에 나타내 보이셨던 속성들에 의해 특징 지워져야만 한다.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 급속히 변화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교회가 발휘해야 할 두 가지 결정적인 속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자발적인 섬김과(willingness to serve) 적응성(adaptability)이다.²⁰⁾

제 4 절 교회개척의 이해

1. 교회개척의 정의

체니(Chaney) 박사는 그의 저서 *Church Planting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에서 교회 개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한 교회가 다른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누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회중을 형성하는 행위이다.”²¹⁾ 명성훈 박사는 교회개척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다.

19) Erickson, *교회론*, 75.

20) Erickson, *교회론*, 89.

21) Charles L. Chaney, *Church planting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1991), 55.

“건강한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연장의 하나로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다.”²²⁾ 교회개척과 성장의 이론가로 알려진 와그너 박사는 교회개척을 “Church Planting”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을 마치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나무가 자라고 번성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또 맬퍼스는 교회개척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개척이란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에 기초하여 지역교회들의 시작과 성장에 계획된 과장이 관여되는 힘들이지만 재미있는 믿음의 모험이다 (의미 불분명).”²³⁾

위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기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키 위해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하는 넓은 의미의 선교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2. 성경에서 살펴본 교회개척

성경은 교회 개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신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한 신앙고백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분명한 선포를 하셨다.

교회개척은 예수님의 명령(마 28:19-20)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회 개척의 유형도 그분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교회개척의 유형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최초의 교회개척의 실례가 있는 신약성서의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저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초기에 탄생한 교회는 급격히

22)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 1997), 16.

23) Aubrey Malphurs, *21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Planting Growing Church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6), 28.

성장하였으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 신약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해 힘썼다. 또한 이 교회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한대로 나눠주는 유무상통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다.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으며, 날마다 숫자가 더하게 되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계속되었지만, 반면에 전도를 통한 하늘나라의 확장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만 커지게 되었다. 결국,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다소 사람 사울의 핍박을 통하여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전도하고 교회가 예루살렘 밖에서 개척되기 시작되었다(행 8:4). 이와 같이 초대 교회의 개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미리 준비하고 예산을 세우는 등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핍박을 통해 기존 교회 구성원들을 흩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다. 이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 9:31)라고 기록한다. 수가 더해졌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던 것을 볼 수 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 가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므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 결과로 안디옥이라는 곳의 도시 교회가 개척되었다.

초대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한 모범적인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였으며, 이 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등 이방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개척했다. 아울러,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바울은 그의 동역자와 함께 제 2차 교회개척 여행을 통해서 먼저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도우며 격려했으며, 빌립보, 테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다.²⁴⁾

제 5 절 교회개척의 필요성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런데 왜 교회개척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대답은 이렇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 교회개척이기 때문이다. 오브리 맬퍼스(Aubrey Malphurs)는 불신자를 접촉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새로운 교회개척이라고 했다.²⁵⁾

교회개척 전문가인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박사는 그의 책에서 “하늘 아래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전도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의 교회개척의 필요성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 본다면, 첫째는 성경적이다. 둘째는 교단의 생존을 의미한다. 셋째는 새로운 지도력을 자극한다. 넷째는 효과적인 전도방법이다.²⁶⁾ 이해를 더하기 위해 교회개척의 필요성을 중요성과 유용성으로 나누어 좀 더 살펴 보고자한다.

1. 교회개척의 중요성

가. 예수님의 지상위임령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준 지상위임령(마 28:19-20; 행 1:8)은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연관되어 있다. 사도들과 바울은 전도만이 아니라 가는 곳 마다 교회를 세웠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다. 교회 개척은 성경적이다. 교회 개척은 온 세상에 복음을 확장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뜻이다. 사도행전 1:8에 분명히 기록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순종해야하는 거룩한 사명이다.

24) 김송식, “가주에서의 남침례회 한인교회 개척전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15-16.

25) Malphurs, *21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30.

26) Wagner, *교회개척가이드*, 15.

나. 복음전파의 효율성

교회 개척은 복음전파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떤 주어진 지역에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욱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미남침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72년에서 1982년 사이에 개척된 교회들을 조사해본결과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보다 새로운 교회들이 빨리 성장하며 복음 전파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²⁷⁾ 위의 사실들은 새 개척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2. 교회개척의 유용성

가. 새로운 지도력 개발

개척은 새로운 지도력을 개발한다. 교회 개척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자가 필요하게 되고 잠재되었던 성도들의 새로운 지도력이 개발되며, 사역의 문이 넓게 열리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된다(행 16:5). 특별히 목회자 리더십 뿐 아니라 교회개척은 평신도 리더십 개발에 공헌한다.

나. 기성교회에 도전과 자극

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 성장하다 보면 정체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존교회는 15년이 지나면 정체와 감소의 운명을 맞게 된다. 교회정체성을 탈피하고 활성화를 찾게 되는 좋은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권위 있는 교회전문가 라일 쉘러는 전통적인 교회가 많은 교단에서 쇠퇴기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많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성장을 위한 교단적 전략을 개발하는 첫 단계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되어야한다.”²⁸⁾

다. 새로운 변화에 쉽게 적응

어느 세대나 그 시대에 맞는 교회가 있다. 복음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지만 전달

27) Malphurs, *21 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60.

28) Dean R. Hodgeand and David A. Roozen, eds., *Understanding Church Growth and Decline, 1950-1978* (New York: The Pilgrim press, 1979), 351.

의 방법은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불신자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방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이들을 위한 새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기성교회보다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더욱 유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²⁹⁾

29) Malphurs, *21세기 교회개혁과 성장과정*, 65.

제 3 장

교회 개혁의 원리들

지금까지는 교회 개혁의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 먼저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고 교회개혁의 성경적 이유 및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3장에서는 교회개혁의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교회 개혁의 핵심적 원리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교회개혁의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원리들을 살펴보고 교회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교회개혁과 기도

교회개혁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다(마 16:18).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된다. 교회개혁은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밥 로건은 그의 개혁 교회론 강의에서“기도는 영적 능력을 풀어주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전에 영적인 밭을 경작해준다”라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은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³⁰⁾ 기도는 교회개혁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교회개혁에 있어 기도는 필수적인 첫 번째 요소다.

1. 개혁자의 기도생활

먼저 개혁자 자신은 개인적 기도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사역 할 수 없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개혁자 자신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내가 바쁘므로 기도 한다”라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처럼, 시간에

30) Bob Logan, *교회 개혁론*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Fall 2008), 5.

쫓기는 개척자의 분주한 사역 속에서 개척자 자신의 기도생활은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분주한 삶 속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다(막 1:35-38).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도 개인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행 10:9-20). 초대교회의 교회 개척자인 사도바울은 기도할 때 루디아를 만났고, 이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다(행 16:6-13). 그러므로 개척자는 교회 개척팀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 가족이 기도에 동참함으로 같이 사역의 짐을 나누며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보기도 팀 개발

중보기도는 교회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중보기도사역이 새로 시작하는 교회개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교회개척 온 멤버와 개척 후원자의 중보기도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온 교회가 기도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한다. 중보기도 팀은 교회가 개척되기 전부터, 개척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고 그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보기도 조직이 이루어야 한다. 중보기도 팀원들이 서로 기도하며 기도응답을 나누고 서로를 자극하여야 한다. 중보기도 팀은 다음과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중보기도 후원자 선택

- (1)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 (2)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
- (3)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
- (4) 기도생활에 헌신된 사람

나. 중보기도팀 구성

- (1)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로 바람직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택
- (2) 명단을 작성한 후 초청장 발송

- (3) 기대감과 책임감을 더하기 위한 약정서 준비
- (4)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계획과 기도제목을 수시로 나눔

3. 기도하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

건강한 교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교회생활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한다”라는 결과를 스티펜 맥키아는 그의 책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에서 기도가 최우선으로 중요시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³¹⁾ 개척교회는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전략적인 기도사역을 위한 중보기도팀 운영, 헌신된 중보기도 사역자 확보, 그리고 사역 대상지인 지역에 대한 전략적 기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온 성도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체험하며 온전한 기도사역을 위해 정기적 기도행사와 지속적인 기도사역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교회의 다양한 기도 프로그램으로는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연쇄 중보기도, 그리고 특별 작정 기도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 2 절 교회개척을 위한 비전

새로 개척하는 교회에서 비전은 필수적이다. 비전은 단순한 바람이나 꿈꾸는 것이 아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다. 명확한 비전이 없이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없다. 명성훈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개척 교회의 비전정립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교회개척은 비전의 결과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바로 개척자가 가지는 비전이기 때문이다.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³²⁾ 비전은 교회 개척자에게 개척과 관련한 사역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 그러면, 비전이란 무엇인가? 교회의 비전은 교회 개척자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미래 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그림을 말한다. 비전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에서부터 주어져야 한다. 즉 자기 백성을

31) Stephen A. Macchia, *Becoming A Healthy*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9), 20-23.

32)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사, 1997), 28-29.

죄에서 구원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부터 힘, 열정 그리고 계획이 나오는 것이다. 조지 바나는 “효과 있게 삶을 변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전이다”³³⁾라고 말한다.

교회 개척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 개척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교회 핵심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나누고 전달하며,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비전은 개척자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생기는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비전이 있는 교회 개척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현 시대의 문화, 세계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이 뜻 곧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1. 비전의 중요성

미국의 교회연구 전문가 조지 바나에 따르면 “목회자의 2 퍼센트만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반면, 90% 정도는 사역의 기본적인 개념만을 알고 사역할 뿐”이다.³⁴⁾ 많은 목회자들이 비전의 필요성을 알면서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제 교회비전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겠다.

첫째, 비전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한다. 교회 개척자가 비전을 제시할 때에, 비전은 교회의 이미지가 되고, 개척 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헌신을 결의하게 한다. 교회 개척자와 교인들이 교회가 목표하며 추구하는 방향을 알고 함께 나아감으로서, 한 목표, 한 비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이와 같이 교회 개척의 방향과 교회 개척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비전이다.

둘째, 비전은 교회사역에 힘을 공급한다. 분명한 비전이 없을 때, 사람들은 쉽게 의욕을 상실한다. 그러나 확실한 비전이 제시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지며, 자원하는 마음과 힘을 공급 받아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에너지를 창출해 내며 비전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 어떤 비전을 어

33) George Bana, *The Power of Vision* (Ventura, Calif.: Regal Books, 1992), 17-25.

34) George Bana, *Church Making* (Ventura, Calif.: Regal Books, 1992), 119.

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하느냐가 교회 개척 구성원들의 힘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셋째, 비전은 교회의 사역을 결정한다. 교회의 프로그램, 사역의 결정 그리고 조직이 비전을 통해서 분석 평가되며 또한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넷째, 비전은 동기를 유발한다. 이것은 비전의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성취할 마음의 동기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 비전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유인하고, 도전을 주며, 하나로 뭉치게 한다. 재정은 물론 다른 자원 또한 모을 수 있게 한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2. 비전 개발하기

그렇다면 교회 개척에 있어서 비전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비전을 개발하는 일은 비전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기도하며 비전 찾기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찾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즉 교회 개척자인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해야 한다.

둘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이실 때 말씀으로 감동하고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 보다는,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 사용하신다. 순종하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사용하신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며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 개척전문가나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연구하는 것은, 교회 개척이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 시켜준다.

나. 교회의 청사진 만들기

이것은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려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개척자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성취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이 개척 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을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 영감을 정리하기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지에 기록하여 남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전이 좀 더 구체화되고, 다듬어져 가며, 개척자의 삶의 방향을 한 곳으로 인도해 준다. 생각들을 적어 놓은 메모를 참고로 하여, 자신의 교회 개척의 비전을 문장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회 개척자는 정리되지 않은 비전을 정리하고, 그것을 체계화시켜 공식적인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 비전을 교회개척에서 목회사역에 적용

교회개척의 비전을 교회개척 이후의 목회사역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비전을 교회 개척과 목회사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릭 웨렌은 비전을 목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열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교회 개척을 할 때, 비전을 구체적으로 적용, 실천하는데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들이다.³⁵⁾

가. 비전에 동화시켜라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접촉하고,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전제로 교회 개척자는 교인들이 비전을 잘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동화시켜야 한다.

나. 비전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비전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비전을 성취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여야 한다. 한

35) Rick Warren, *The Purpose Drive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5), 138-152.

가지 프로그램이 모든 비전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 비전에 따라 교인들을 훈련하라

교회의 성도 교육은 모든 교회가 실시하는 것인데, 그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비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 즉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교육의 전체 계획과 실행을 목회 비전에 맞추어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비전에 맞는 소그룹 사역을 하라

현대 교회는 그룹의 의미로서 볼 때, 예배와 같은 대규모의 그룹이 있고, 다양한 소그룹들이 존재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소그룹은 획일적인 나눔이나 분류가 아니다. 각각의 소그룹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전문화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인 각자의 신앙의 성숙도와 필요 그리고 관심에 따라서 적당한 소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마. 비전에 필요한 사역자를 고용하라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필요한 스텝을 적절하게 고용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관계나 인맥에 얽매이기 보다는 교회의 비전과 구조, 그리고 역할에 부합한 스텝을 고용하여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물론 개척 교회가 처음부터 스텝을 고용해서 사역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훈련된 평신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바. 비전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라

교회는 조직이 우선하지 않지만, 교회의 성장과 함께 유기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을 필요로 한다. 교회 내의 모든 조직은 전통 교회의 형식을 따라가기보다는 교회의 비전을 고려하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사역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

사. 비전에 맞추어 설교하라

교회 개척 및 성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설교이다. 설교를 통해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이 교회를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개척 교회의 설교는 반드시 비전에 맞게 기획되고, 그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균형 잡힌 설교가 되어야 한다.

아. 비전에 의한 예산을 세우라

유기체로서의 조직을 갖춘 교회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갖게 된다. 모든 예산은 교회의 비전에 맞게 책정하되, 그 비전 성취를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히 책정한다.

자. 비전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라

교회에는 많은 조직과 모임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동시에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교회의 비전을 강조하는 달을 정하여, 그 달에는 모든 모임과 행사의 초점을 교회의 비전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실천하고, 이루기 위한 것에 두어야 한다. 이런 정기적인 노력은 교회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차. 비전의 기준으로 평가하라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가이다. 교회의 교육과 모임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반드시 교회 전체의 비전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평가는 교회의 다른 프로그램과 기획들이 보다 더 비전에 맞게 변화되도록 돕는다.

제 3 절 교회개척과 핵심가치

교회 성장 관점에서 보면 교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다. 성장하는 교회와 못하는 교회들이다. 그렇다면 이 두 교회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성장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갖는 갈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이다. 그러면 왜 갈등이 일어날까? 이유는 간단하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지도자 그리고 교인들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각기 다른 사역의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는 명확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전달하여,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한다. 모든 교인들이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하여 팀워크를 이루어 사역할 때, 성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1. 핵심 가치의 정의

핵심가치란 한 개인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가치관이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이런 가치관에 의해 지배된다. 교회의 핵심가치는 교회운영의 방향을 이끌어가나 반드시 신학적인 것은 아니다. 핵심가치는 교회프로그램, 관계성형성, 교회 시스템, 그리고 목회전략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³⁶⁾

2. 핵심 가치 개발하기

이제 핵심 가치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핵심가치 개발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준비, 전달, 결정, 평가이다.

가. 준비하기

하나님은 교회 개척자들을 그들의 개성과 기질에 따라서 특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교회 개척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개척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자신을 흥분시키고, 열정적으로 만드는지 살펴보아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역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되어진 핵심 가치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한다.

나. 전달하기

교인들에게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를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

36) North America Mission Board, *교회개척자 기본훈련* (Atlanta: NAMB, 2000), 17.

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다. 교회 비전을 활성화시키며 교회의 사역철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핵심 가치를 설교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그 핵심 가치를 전교인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

다. 결정하기

교회 개척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자신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된 핵심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나 사역을 개발하여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은 바로 핵심 가치에서 나오는 논리적인 사역이어야 한다. 교회의 재정, 사람, 이외의 모든 자원들이 제한적이므로 평범한 많은 사역보다는 특정한 몇 가지의 일을 보다 더 탁월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 평가하기

핵심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을 정확하게 평가해야지만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여러 가지 사역들에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며 핵심 가치와 부합되는 사역이어야 한다.

둘째, 사역이 핵심 가치의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사역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전체적인 사역의 조화를 추구해야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

셋째, 자신이 핵심 가치와 특정한 사역에 맞는 사역자인가 평가해야 한다. 핵심 가치와 연결되는 특별한 사역이 개발되었을 때에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역자인가 평가해야지만 목표로 했던 사역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제 4 절 교회개척과 사역대상 연구

농부의 비유를 생각하면, 농부들은 봄에 작물을 심어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기에 앞서 먼저 토양을 준비할 뿐 아니라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생

각한다. 교회 개척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열린 마음을 지니는 동시에, 구체적인 교회사역 대상 그룹을 지녀야 한다. 즉,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 그룹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대상을 정할 것을 가르치셨다. 대상 그룹을 결정하고, 그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회적, 인종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필요를 아는 것을 말한다.

1. 사역대상 그룹 연구

대상 그룹을 찾고 이해하는 것은 교회 개척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상 그룹을 찾고 이해할 수 있는가? 첫째, ‘누가 사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 지역의 사람들 중 특별히 대상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새들백 교회의 대상그룹인 ‘Saddleback Sam’은 교육수준이 높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좋아하고, 현대 음악을 좋아하며, 건강에 중요성을 두고 기성의 종교적인 표현에 회의적인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개척 전에 정확한 대상 그룹을 선정하고 찾아야 한다.³⁷⁾

둘째,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23절에서 “자유자이나 종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 이었다고 말한다. 교회 개척자는 바울처럼 대상 그룹을 결정하고 그들을 이해한 후에,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맞는 복음 선포의 방법을 연구하여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삶을 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상그룹의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필요로부터 시작하

37) Rick Warren,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태, 1995), 183-196.

여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 개척자는 대상 그룹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관계성을 통한 신뢰감을 쌓고 대상 그룹의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

넷째, 인구조사 분포도를 통한 대상 그룹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매 10년마다 인구 통계국을 통해 인구 조사를 한다. 인구조사 분포도를 통해서 대상 그룹을 이해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census.gov>)를 참고해 보면 필요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하면 Scan Us/CACI와 협약을 맺고 자료들을 활용하여 정보들을 제공하는 버지니아 주총회(Baptist General Association of Virginia)와 북미주 선교부(North American Mission Board) 연구부에 연락을 하면 된다.

다섯째, 설문지를 통한 대상 그룹 연구도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목회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 사역대상 지역연구

오늘날 교회 개척을 살펴보면, 많은 교회들이 예전과 같이 교회를 빌리고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시행착오 하는 것을 보아왔다. 교회 개척자는 개척하고자 하는 지역을 조사해야 한다. 여기서는 대상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교회 개척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 지역상황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많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교회의 비현실성 또는 부적절성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표시하곤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관련성이 없는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들의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중시킨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개척자 개인의 리더십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교회 개척을 위한 팀 전체의 참여와 지도력이 함께 효력을 발휘해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은 교회 개척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에 꼭 필요하다. 지역상황을 알고, 교회의 전도방법, 예배의 성격 등을 지역상황에 맞추어야 한

다. 대상 지역에 맞는 사역의 변화는 변질이 아니라 대상 지역에 맞는 사역의 토착화이다. 대상 지역에 맞는 독특한 사역의 전략이 필요하기에 때문에 지역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나. 지역상황을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

(1) Federal U.S. Census Data

교회 개척자는 대상 지역의 상세한 인구 통계학의 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와 종교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에 교회가 필요한 지역이 정하여지면 일정한 목표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미국 인구조사 통계의 자료들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

(2) State, County 혹은 City

대상 지역의 도시나 카운티의 Planning Commission이나 Planning Department를 방문하면 교회 개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정보들과 도시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3) Chambers of Commerce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지역의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4) Public Library

각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립한 도서관에 가면 도시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5) 부동산 사무실

대상 지역에 있는 한인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한인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다. 지역 상황에 따른 교회 개척의 종류

국가별,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차이 그리고 소비 도시, 전통 도시, 환락 도시, 신도시 등의 도시 유형, 또한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위치와 주민들의 인구수와 관습 등이 개척 팀과 개척 교회의 유형을 결정한다. 도심지 변두리 지역과 농촌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와 촌락은 보다 작은 도시 교회와 이웃 교회를 지원하기에 충분치 않아

서, 큰 지역을 봉사할 주요 교통 도로변에 있는 도심지 개척 교회가 필요하다. 지역 상황에 맞는 교회를 개척해야 성공적이 될 수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개척되는 교회의 종류, 개성 그리고 성장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 5 절 교회 개척과 전도사역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복음전파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교회개척의 주요사명은 하나님의 목표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교회개척은 이 복음전파의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개척교회에서 전도는 필수적인 것이다. 구원 받은 성도의 신앙성장과 교회성장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도 전도훈련이다. 무엇보다도 교회개척자는 열정적인 전도의 사명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 가셨고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많은 복음적인 교회들이 전도를 강조하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는 대부분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1. 전도전략의 필요성

교회의 전도 대상인 그 지역의 불신자를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 정보에 기초한 효과적인 전도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임스 화이트(James White)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여덟 가지로 말하고 있다.³⁸⁾

첫째, 교회에 출석할 가치를 못 느낀다. 교회에 출석해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미 들었으므로, 이들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교인들이 너무 위선적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며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시간이 없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이 가치를 두는 일에는 시간을 내

38) James E. White, *Rethinking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17-19.

지만, 교회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다.

넷째, 관심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관한 질문들을 하며 영적인 것을 탐구하지만, 교회에는 관심이 없다.

다섯째,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너무 자주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돈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보다는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여섯째, 교회의 예배가 지루하다는 것이다.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 질지 예상할 수 있으며, 지루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기에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일곱째,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생활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언급되는 주제, 음악, 그리고 언어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의 문제는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다.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에는 교회에 출석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나가지 않는다.

2. 전도전략 만들기

믿지 않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도훈련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시대적인 변화와 문화적인 배경을 넘어 성경적인 원리들을 살펴본다. 오브리 멜퍼스는 성경의 전도전략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 대표적인을 정리해본다.³⁹⁾

첫째, 찾아감의 원리이다.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찾아감의 원리

39) Aubrey Malphurs, *21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Planting Growing Church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6), 301-321.

를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내포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가지 아니하는 교회는 주님의 지상최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둘째, 가치 원리이다. 가치 원리는 한 영혼 구원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면 교회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셋째, 관계 원리이다. 관계 원리는 교회로 하여금 잃어버린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욕구 원리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시고 그의 욕구를 채워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욕구 원리를 사용하신 본을 따를 필요가 있다. 이는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의 필요한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복음을 제시하는 원리이다.

다섯째, 문화 원리이다. 문화적 원리는 교회가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습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하되 복음의 본질을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는 열려 있으나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따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 번째, 수용성 원리이다.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앵겔계수 혹은 수용성거부계수를 참조하면 복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는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분류하였다.

일곱 번째, 의사전달 원리이다. 의사전달 원리는 성경적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한 언어로 전달하는 정보전달의 원리이다. 특별히 비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많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여덟 번째, 구체적 기도 원리이다. 교회사역에서 기도는 필연적이다. 영혼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성취되는 영적인 일이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여야 한다.

아홉 번째, 후보자 원리이다. 후보자 원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관계성에

기초한다. 교회의 오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교인인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이 소개하여 오게 된다. 신약성서에도 고넬료의 가정이 좋은 실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행 10:24; 11:14).

제 6 절 교회개척과 소그룹

미국의 소그룹사역 이론의 대가인 칼 조지는 그의 저서에서 21세기의 교회에 부합하는 유일한 교회 형태는 소그룹 모임이라고 주장했다.⁴⁰⁾ 교회 개척부터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로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의 소그룹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수가 많아질수록 얻는 것은 더 작게 된다.” 오브리 맬퍼스는 예수님의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강한 소그룹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러한 소그룹사역은 교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⁴¹⁾

1. 소그룹의 정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라고 묘사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시작부터 성전에 모여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사역을 시작 하였다. 이런 소그룹 모임을 아놀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헌신한 3명에서 12명까지의 의도적인 모임” 이라고 정의했다.⁴²⁾

아이스 노글은 소그룹이 “남녀가 피조물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증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모이고 계획하며 행동하는 기초공동체”라고 정의한다.⁴³⁾ 이와 같이 소그룹은 작은 규모의 무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고 상호 의존

40)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255.

41) Malphurs, *21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323.

42) Jeffrey Arnold, *Big Book on Small Group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9.

43)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4), 23.

해서 이루어가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은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 모이거나,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이며, 혹 어떤 모임은 그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성취하기 위해 모인다.

2. 소그룹의 특징

이제 구체적으로 소그룹이 교회 개척에서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니코라스는 소그룹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말하고 있다.⁴⁴⁾

첫째, 소그룹에는 융통성이 있다. 소그룹은 참석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임의 순서와 절차를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

둘째, 소그룹에는 이동성이 있다. 소그룹은 모임의 장소에 매이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그리고 커피숍 등 어느 곳에서나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소그룹에는 수용성이 있다. 만약 소그룹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그룹에 속한 다른 구성원이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그리워하게 된다. 또한 이런 소그룹은 구성원을 조직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적이다.

넷째, 소그룹은 인격적이다. 소그룹은 적은 규모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친밀감을 고양시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모임에 헌신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처소가 된다.

다섯째, 소그룹은 모험적이다. 소그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할 모험의 국면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서로 간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염려 등을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해 가고, 인간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면서, 인격 및 영적 포용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

여섯째, 소그룹은 복음 전도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셀 또는 구역의 변환된 형태로서 다양한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목표는 복음 전도를 통한 구성원의 증가에 있다. 따라서 교회의 소그룹을 통해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주지 않고,

44) Ron Nicholas,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역 (서울: 한국기독교 출판사, 1991), 23-25.

그 소그룹이 지닌 참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헌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3. 소그룹의 활동요소

소그룹의 기본적인 활동요소를 니콜라스는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⁴⁵⁾ 첫째는 양육이다. 여기서 양육은 지성과 심신, 양측에서의 성장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소그룹으로 양육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양육시켜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한다.

둘째는 예배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존재와 그가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반응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표현의 행위가 예배이다. 진정한 예배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힘이 있다.

셋째는 공동체적 교제이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의식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속감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갖는 공동체 의식은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느끼는 사랑과 헌신과 같은 감정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삶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선교이다. 선교는 생명력이 넘치는 소그룹 활동의 마지막 요소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존재하는 것은,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복음이 세상 끝까지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소그룹 사역의 유익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제적인 유익을 살펴보겠다. 먼저 그룹원들이 친근해지며 가족과 같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서로 신앙을 실질적 삶을 통해서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그룹원들의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실질적 사역의

45) Nicholas,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27-32.

장을 만들 수 있다. 넷째, 그룹원들이 함께 은사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새로운 회심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며 기성 그룹원의 리더십을 계발할 수 있다.

5. 소그룹 리더의 자질

성공적인 소그룹의 성패는 그룹 인도자의 역량에 좌우된다. 그러면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에게는 어떤 자질들이 필요한가? 리더는 소그룹에서 절대적인 중심 역할을 한다. 이런 중요성을 지닌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자이어야 한다. 리더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리더가 성장하는 만큼 소그룹의 회원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리더는 사람들 각 개인에 대해서 삶의 크고 작은 것까지 파악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그룹 구성원이 각자의 삶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리더는 섬기는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으나 섬기는 리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리더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셨듯이, 소그룹 구성원들을 희생적으로 섬기고 그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서 소그룹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섬김과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넷째로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리더는 자신의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이를 통해 리더는 그룹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격려하며 위로하여, 구성원들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술선수범하여 섬기는 리더는 자신도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성원들을 세워주고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역량 있는 리더가 된다.

6. 소그룹의 운영 원리

그렇다면 이런 소그룹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소그룹은 교회 개척에서부터 필요한 것이다.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⁴⁶⁾

첫째, 효과적인 소그룹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눔(Sharing)이 있어야 한다. 즉 회원 상호간에 자신의 언어로 신앙의 체험이나 간증, 교훈 등을 나누는 것이다. 한 사람이 모임 속에서 많이 나눌수록 모임의 일원이라는 것을 더 잘 느끼게 된다.

둘째,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이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소그룹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소속된 조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게 한다. 특별히 소그룹의 지도자는 주관자가 아니라 항상 안내자가 되어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의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한다.

셋째, 소그룹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 한다. 소그룹 안에서는 서로의 의견과 질문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또한 모임 안에서 어떠한 의사라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의견이 논쟁이 되는 토론은 피해야 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중요한 진리보다는 진리가 아닌 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서로를 세워 주라(롬 14:19).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서로에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한 팀이다. 우리는 서로 건전한 자존심을 세워 주기를 원한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랑으로 인도해야 한다. 사랑과 관용, 용서를 소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습함으로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도록 한다.

일곱째, 문제의 사람은 모임에서가 아니라 일대일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모임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 새로운 사람을 환대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는 소그룹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새사람이 왔을 때 환영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

46) Dale Galloway, *뉴호프 커뮤니티 이야기 (The Small Group Book: The Practical Guide for Nurturing Christians and Building Churches)*, 김연희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93-104.

다.

아홉 번째, 소그룹 안에서 여유 있고 유머 있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리더의 유머감각은 소그룹의 분위기를 환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열 번째, 리더는 그리스도께서 소그룹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제 4 장

다중 지역교회의 성경적 이해

이 시대의 교회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심전도의 정체현상으로서, 이는 교회성장의 침체와 새로운 교회개척의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 된다. 기성교회 성도들의 대형교회로 향한 단순한 수평적 이동과 불신자 전도의 한계성으로 인한 개척교회의 어려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부흥했다고 하나 전도를 통한 새로운 신자의 증가가 아니라 주변의 작은 교회에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한 양적 증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본 연구자는 최근 미 교계에 바람직한 교회모델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중지역 교회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⁴⁷⁾

과거 다중지역교회 모델은 일반적으로 대형교회들이 장소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해결책으로 알려져 왔다. 이시대의 많은 교회 전문가들은 불신자전도와 지역교회성장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전통적인 대형교회가 아닌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다중지역교회 모델은 복음전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교회개척을 다중지역 교회론에 접목시킴으로서 단순한 교세의 확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불신자들의 회심전략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근래에는 다중지역교회 모델에 기초하여 개척되는 교회들도 있다. 이 장에서는 다중지역교회 개척의 실제적 방법들을 연구하기에 앞서, 다중지역교회 전략이 성경적 근거와 원리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7) 이해동, “찾아가는 교회, 멀티사이트처치(Multi-site Church),” n.p. [cited 6 October 2008] Online: <http://newsmission.com/news/print.asp?seq=16764>.

제 1 절 다중지역교회에 대한 정의

1. 정의

“다중지역교회”는 비교적 생소한 용어이다. 현재까지 출판된 참고문헌들도 많지 않다.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이라는 책에서는 다중지역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⁴⁸⁾ “다중지역교회(multi-site church)란 하나의 교회가 여러 군데 공간-다른 방,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도시에서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같은 비전, 같은 가치, 한 예산집행, 같은 리더십, 같은 교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되는 한 믿음의 공동체 유형이다.” 다중지역교회는 실제적으로 많은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한다. 즉 비디오, 위성중계 혹은 다른 사역자가 직접 지역교회의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선포한다. 현재 대부분의 다중지역교회 사역은 큰 도시근교 지역에서 활발하나 점차 중소 도시와 지방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다. 교회의 크기도 대형교회들이 시설의 제한을 해결하는 일차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도 시작부터 다중지역교회 전략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다중교회사역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은 불신자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나아가 사역의 대상인 그들을 참 제자화하고 헌신된 사역자로 세우는 데에 있다.⁴⁹⁾

다중지역교회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그 모델을 제시한다.

가. 비디오를 사용하는 모델(Video-Venue Model)

교회가 설교를 녹음/녹화하거나, 위성으로 같은 시간에 거리적으로 떨어진 지교회들이 함께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것이다.

나. 지역 캠퍼스 모델(Regional-Campus Model)

같은 지역권에 여러 지교회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설교는 비디오나 의성 혹은 교회 설교팀원이 전달한다.

48) Geoff Surratt, Greg Ligon, and Warren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06), 91.

49) Surratt, Ligon, and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18.

다. 교육 팀 모델(Teaching-Team Model)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들이 팀을 이루어 비디오나 위성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설교한다.

2. 성서적 고찰

다중지역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20절의 교회가 회중으로 함께 모인 것이다.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모임이라는 뜻을 사용하였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 번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임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신약성경은 초대기독교인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작은 모임과 큰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실례는 가정에서 모이는 다중지역교회가 전 도시교회의 한 교회의 일원이었다. 교회의 개념이 같은 곳에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신약성경에서 개교회라는 의미가 매주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주장한 곳은 찾아볼 수 없다. 교회의 회중이라는 모임에는 기능적인 것 보다는 “언약”이라는 본질의 의미가 크다.⁵⁰⁾ 성경의 증거는 개교회의 회중들이 함께 모이고, 또한 작은 단위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행 8:1; 11:22; 15:4).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3,000명이상이 함께 모여 매주 함께 모임을 가졌다는 증거는 없다. 그들은 평소에는 가정교회에서 정기적 모임을 갖다가,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때에 함께 성찬식을 갖고 축복하는 모임을 가졌다(고전 11:17-20).

3. 신학적 고찰

신약성경의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교회의 연합”과 “협력”, “상호 의존” 등의 성경적인 가치관들은 다중지역교회의 원리에서도 찾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지역교회

50) J. D. Grear, "A Pastor Defends His Multi-Site Church," *9 Marks*, May/June 2009, 1-5.

의 원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회들에게 좋은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공회(행 15) 그리고 마게도나 교회가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교회를 돕는 것(고후 8-9)은 사랑, 연합 그리고 협력이라는 주요 성경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회연합의 가치를 강조한다면, 다중지역교회사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개척 개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중 교회 분열과 불화에 대한 8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이다. 바울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같은 교단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중교회 구조는 교회들이 독단적으로 흐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사랑과 연합 그리고 협력으로 가는 길에 큰 기여를 한다.

제 2 절 성경에서 살펴본 다중지역교회 이론들

마태복음 28장 18-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당부한다. 그 후 초대교회들은 이러한 교회의 기본사명을 다하며 주님의 교회의 재생산을 이루어갔다(행 2). 다중지역 교회론의 핵심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다.⁵¹⁾ 몇 가지 다중지역 교회론의 원리를 신약성경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복음서에서 본 다중지역교회이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다(마 16:18). 그리고 그분이 주신 교회의 목적은 복음서의 두 구절에 명시되어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2장 37-39절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고, 둘째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

51) Elmer Towns, Ed Stetzer, and Warren Bird,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Ventura: Regal from Gospel light, 2007), 74.

고 그들을 파송하라는 재생산의 명령이다. 결과적으로 다중지역교회 원리의 기초는 교회의 크기나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의 사역이 대계명과 대사명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핵심을 두는 것이다. 더나가 사역의 목적도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는데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역의 방법을 목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 중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처럼 복음 사역자를 많이 파송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예배자는 많아도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절실한 사명 중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신도를 훈련하여 그들에게 구체적인 사역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엡 4:12). 이런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사역의 장도 제한되었고,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도 구조적인 한계에도 부딪쳐 있다. 다중지역교회 전략은 교회의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한다.⁵²⁾

2. 사도행전에서 본 다중지역교회이론

초대교회의 여러 도시에 각 지역교회들이 있던 것을 볼 수 있다. 다중지역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큰 이유는, 모교회인 예루살렘교회에 가해진 핍박을 피하기 위해 흩어졌던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지역교회가 안디옥교회였는데, 말씀을 통하여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교회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이 두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공유하고 협조하며 같은 비전과 리더십, 핵심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등 다중지역교회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여러 장소에서 모이는 교회조직에 대해 언급한 것도 볼 수 있다.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는 오늘의 교계의 모습 보다는 사랑과 연합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공유한 모습이다. 오늘날 다중지역교회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함께 연합하는 다중교회의 부분적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52) Surratt, Ligon, and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18.

3. 바울 서신서에서 살펴 본 다중지역교회이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인 제자를 만들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말씀이었다. 사도바울은 그의 복음사역을 통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복음의 가르침을 편지로 회람시키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나온다. 다른 생활권에 사는 성도들에게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 즉 다중지역교회 사역의 비디오, DVD, 위성을 통한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같은 원리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도바울의 사역의 원리는 상황인식론이다. 그는 다른 문화권의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자신의 배경인 유대적 문화관점보다는 전도대상지역인 현지의 문화관점을 통하여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였다. 다중지역교회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교회비전과 핵심가치를 전도대상 지역의 문화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함이요 여러 사람에게는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전 9:20-22).

바울의 서신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1세기의 초대교회들은 교회의 정의를 건물이나 지역으로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가정집이나 회당, 그리고 야외에서 모이면서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서로를 전체적인 한 공동체로 믿었다. 또한 이들은 지역을 초월해 같은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목표를 가지고 헌신했다. 이러한 원리는 다중지역교회의 핵심가치인 것이다.

4. 역사적 관점에서 본 다중지역 교회이론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다중지역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시대에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초대교회시대에 그 모습이 있었고 근세에는 감리교 교단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사역현장에서 다중지역교회의 원리들을 활용했다. 한 가지 실례는 지역 선교지에서 한 순회 설교자들이 순회하며 주일학교를 인도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7절과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근세 감리교회의 순회복음전파, 버스를 이용한 주일학교 운영 제도,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기술과 현대인들의 위성예배는 모두 같은 원리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⁵³⁾

53) Surratt, Ligon, and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91.

제 5 장

다중 지역교회에 대한 연구

제 1 절 문헌에서 살펴본 다중지역 교회론의 원리와 방법

현재까지 다중지역교회(multi-site church)에 대하여 발표된 책과 연구 자료는 매우 소량이다. 본 연구자는 대표적인 보고서와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을 중심으로 다중지역 교회론의 대표적 이론을 정리한다. 최근 북미주의 교회들이 다중지역교회론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초부터다. 2005년 10월 ‘다중지역교회 컨퍼런스’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1990년에 10개의 교회가 있었고 1998년에는 100개 교회로 증가했고 2005년 후반에는 북미전지역에 1500개의 교회가 있다고 보고되었다.⁵⁴⁾

1. 용어의 이해와 도움

가. 다중지역교회개념에서 파생된 용어들⁵⁵⁾

(1) 다중 지정지 (Multi-Venue)

한 교회 장소 안에 여러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 보는 것. 예) Fellowship Bible Church (Little Rock)

(2) 다중지역교회 (Regional Multi-Site)

같은 지역 안에 여러 캠퍼스에서 예배 보는 것. 예) North Point (애틀랜타), Willow Creek (시카고)

54) Surratt, Ligon, and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18.

55) Warren Bird, “Extending Your Church to More Than One Place: A Field Report on the Emerging Multi-Site Movement,” *Leadership Network* (June 2003): 1-7. Cited 5 May 2008. Online: <http://66.132.139.134/uploads/ExtendingYourChurch.pdf>.

(3) 확장된 지역교회 (Extended Multi-Site)

한 교회 체제에서 여러 군데 장소에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예배 보는 것. 예) Christ the King (시애틀), Community Christian Church (시카고), Grace Community (Tyler)

(4) 다중지역 교회개척 (Church Planting Multi-Site)

한 교회 안에 여러 회중이 소속되어 있는 것 (의도적인 교회개척).

(5)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된 다중지역교회 (Variations on the Above Themes)

교회가 위의 1), 2) 3) 방법을 통합하여 실행하는 것. 예) North Coast

나. 대표적인 다중지역교회에 관한 웹사이트

(1) Leadership Network

달라스 텍사스의 효과적인 교회사역 자문, 연결 정보와 전략적 자원 제공

www.leadernet.org

(2) New Thing

시카고 커뮤니티 교회의 Dave Ferguson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다중지역교회 개척운동을 도와주는 단체 www.newthing.org

(3) NorthCoast Church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를 중심으로 다중지역교회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

www.northcoastchurch.com

(4) Seacost Church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다중지역교회사역으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

www.seacoastchurch.org

(5) Community Christian Church

다중지역교회 원리를 기초로 하여 개척된 미국 시카고 지역의 교회

www.communitychristian.org

(6) 남가주 사랑의 교회

대표적인 한인이민교회로 6개의 다중지역교회가 있음 www.sarang.com

(7) 온누리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다중지역교회 www.onnuri.or.kr

2. 다중지역교회의 특징

가.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좋은 점들을 같이 선택하여 취할 수 있다.

나. 교회 장소의 제한에 의한 문제(좌석수, 주차장, 공간, 교실)들을 해결 할 수 있다.

다. 교회성장과 발전으로 인한 교회 건물과 시설의 확장, 혹은 구입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라. 전도대상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마.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을 실제화 할 수 있다.

바.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회 자원을 선교사역에 투자 할 수 있다.

사. 새 지역과 전도대상을 중심으로 예배스타일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목회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아.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회개척을 시도 할 수 있다.

3. 다중지역 교회론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 소개

대표적인 다중지역 교회론에 관한 문헌을 소개한다.

가. Report from a leadership network forum⁵⁶⁾

2001년 9월 11일 65명의 다중지역교회, 다중캠퍼스, 다중관할구등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동안 해 온 사역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02년 2월에는 후속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다중지역교회 사역은 새로운 전도 대상 그룹이 속한 지역상황에 맞는 교회를 시작하며, 이미 기성성도들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교회 그룹과 분리되어 새로운 다

56) David Travis, "Multiple-Site/Multiple-Campus Churches," *Leadership Network* (September 2001), 1-7. Cited 5 May 2008. Online: <http://www.vbmb.org/Ministries/Church.../Financial-Multi-Site-Report.pdf>.

른 그룹을 전도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이를 통해 교회가 성장할 때 부딪히는 교회확장에 반대하는 주위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교회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혹은 특수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적용할 수 있다. 특별히 새로운 언어권, 문화권 내의 같은 교단의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다.

(2) 다중지역교회 사역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자들 간의 관계성 형성, 그리고 지역담당 혹은 캠퍼스 담당사역자의 위치와 업무지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일에 있다. 특별히 한 교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 사역팀으로 사역할 때, 협동심과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3) 다중지역교회 사역의 다양한 방법은 유용한 것이지만 방해물이 아니다. 한번 준비된 프로그램을 복수적으로 사용하므로 사역의 효율성이 있다. 같은 비전과 행정이 여러 곳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나. '열한가지 혁신적인 교회개혁방법론'이라는 저서⁵⁷⁾

다중지역교회론은 이미 요한 웨슬리와 감리교도로부터 170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 흐름은 여러 이름과 모양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Satellite campus, 혹은 Regional campus로 다양한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니는 핵심적인 공통점은 한 교회 우산 아래 같은 핵심가치, 사명, 행정과 예산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중지역교회들은 불신자 전도에 우선순위를 둔다. 현재 다중지역 교회들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북미 대도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미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저자들은 조심스럽게 교회의 구조상 담임목사는 감독 같고 지역담당목사는 개교회 목사 같은 모습으로 치우칠 염려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중지역교회의 장점을 서술하면서 성경적으로 타당한가를 매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Willow Report (Spring 2008 Report)⁵⁸⁾

월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다중지역교회와 공동체 전략가인 Jim Tamberlin는 그의 교회가 다중지역 교회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작을 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01년

57) Towns, Stetzer, and Bird,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63-94.

58) Jim Tomberlin, "The Main streaming Muti-Site Church," *Willow*, Spring 2008, 1.

9월 13일 300명이 모여 시카고에서 45분 거리의 빌리그램 센터 워튼 칼리지에서 “Videocast”방법으로 처음 시도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토대로 교회는 다중지역교회를 시카고 전 지역에 확산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카고 내 5군데에 세우기로 전략을 수립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시설은 임대하지만, 전임 사역자가 있고 프로그램은 본 campus와 똑같이 진행한다. 현재 전체성도의 20%가 지역 다중지역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구적인 시설에 돈을 투자하거나 부차적인 것에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주의 복음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저자는 주장하기를 다중지역교회의 장점은 큰 교회 안에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다양한 리더십 활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현재 2,000개의 교회가 이 원리를 사용한다. 다중지역교회의 원리는 더 이상 새로운 흐름이 아닌, 보편적 원리가 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다중지역교회 사례 관찰과 분석

지금까지 기독교 교계에 발표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다중지역교회를 살펴 보았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미주와 한국 교회들을 살펴 보며 다중지역 교회론의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교회 간의 다양한 차이점들을 살펴 보며 비교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시카고 커뮤니티 교회(Community Christian Church)

시카고 커뮤니티 교회는 이 시대에 다중지역교회(multiple-site)의 실질적 모델이 되며 특별히 개척부터 다중지역교회사역을 핵심가치로 시작한 교회다. 이 교회는 1989년 시카고 근교에서 교회 창립자인 데이브 포거슨을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을 통해 시작되었다.

현재 시카고 다섯 지역에서 매주 3000명 정도가 모여 비슷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성장의 원칙이 되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다중지역교회론을 활성화

화 하였다. 창립자인 퍼거슨은 하나님이 다중지역교회전략이라는 새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고 주장한다.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교회성장을 통한 체험으로서 다음의 단어들을 자주 사용한다—소그룹 재생산, 성도, 캠퍼스, 재생산하는 지역교회 등.⁵⁹⁾

이 교회의 주요 사역의 원리는 다중지역교회를 통한 재생산과 회복 (Revitalization)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직접 다가가는 선교적 교회, 전도 지향적 교회의 추구이다. 교회의 사역의 원리를 보면 이렇다. 첫째,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와 소규모 모임을 인도하되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독특한 내용도 보충한다. 둘째, 모이는 장소는 한 곳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대한 것으로 학교, 사무실, 커뮤니티 센터를 사용한다. 셋째, 교회 단독 목회자보다는 팀 중심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간다. 넷째 지역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하며 전문성을 갖춘 평신도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섯째, 불신자 전도에 집중하며, 시카고 지역에 많은 과거 천주교인들을 주요 전도 대상으로 한다.⁶⁰⁾ 이 교회는 지역주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다중지역교회론의 탁월한 전략을 잘 활용하여 전도중심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2. 맥클린 바이블 처치(Mclean Bible Church)

맥클린 바이블 처치는 1961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도시의 근교인 북 버지니아에서 창립된 초교파 복음주의적 교회이다. 개척 초기, 다섯 가족으로 시작된 이 교회는, 현재 중상류층 지역인 맥클린에서 매 주일 예배에 13,000명이 출석하는 초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교회 주위 환경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미 정계와 외교가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 현재 담임목사인 론 솔로몬은 4대 목사로 1980년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28년을 목회하고 있다. 작은 교회였던 이 교회가 담임목사의 지역사회 복음화 비전을 구체화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로 성장 하였다. 정통 유대교의 배경을 지닌 담임목사는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순회전도자의 전도를 통해 파란만장했던 젊은

59) David Ferguson, “또 하나의 대안, 재생산하는 교회,” *목회와 신학* 71, 2004년 2월호, 70-77.

60) Tomberlin, “Multi-Site Church Phenomenon,” 8.

날의 삶을 접고 회심하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회심전도의 큰 체험을 통해 “Impact Secular Washington for Christ”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심전도와 실제 생활에의 적용을 강조한 설교사역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다.

담임목사인 론 솔로몬 목사는 세속적인 워싱턴 디시 수도권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다중지역교회 방법이 불신자 전도에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현재 교회 분위기와 문화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과 신세대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섯 군데 이상의 지역(Site)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는 워싱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다중지역교회 전략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6년에는 Community Campus라는 새로운 개념 즉 다중지역교회 전략을 가지고 지리적인 지역권, 그리고 세대적인 문화에 적합한 9개의 다중지역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였고, 현재까지 다섯 개의 지역(Site Campus)교회를 설립했다. 교회의 종류를 보면 먼저 본 교회, 새로운 중상층을 주요 대상으로는 하는 라운든 커뮤니티 캠퍼스, 20-30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Frontier Campus, 젊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알링턴 지역의 캠퍼스, 본 교회와 30마일 이상 떨어진 새 주거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캠퍼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매릴랜드 지역과 Afro-American 커뮤니티 밀집지역인 프린스 조오지 카운티 캠퍼스이다. 론 목사는 다중지역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We can keep expanding our impact for the Lord Jesus in this town until we have touched the entire for Christ.”⁶¹⁾

이 교회의 다중지역교회 사역은 매우 역동적이고 매우 성공적이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갖는 탁월한 리더십 시스템과 Site Campus에 부여하는 우선 순위권의 가치관 때문이다. 실례를 들면 첫째, 지도자 훈련 시스템인 “Future Leaders Program”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사역자를 자신의 교회에서 미리 검증하고 사역의 권한을 줄 뿐 아니라 교회 내의 회심전도의 비전을 갖춘 젊은이들 훈련하고 양육하는 기회를 갖는다. 둘째,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회중전도이다. 이를 통해 당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던 다중지역교회론이 오랜 전통적인 신앙의 배경을 지닌 기성교인에게도 불신자 회심전도의 전략으로서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셋째 지역교회 담당목사(campus pastor)

61) “Multi-site Church Risky but Worth it,” *Christian Post*, 6 February 2007, 61.

들의 교회에서 위치와 영향력이다. 지역담당 목회자들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Executive 리더십 팀의 위원으로서 그들의 의견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본 교회와 지역campus의 관계 가운데 협력과 독립이 조화를 이룬다. 이런 원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제도이다.⁶²⁾

3. 미주의 한인교회-헬로십 교회(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미주의 한인교회로서 워싱턴 디시 수도권 지역에서 다중지역교회사역을 하는 곳은 거의 전무하다. 아마도 헬로십 교회를 다중지역교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1990년 17명이 워싱턴 디시 근교 북서쪽 메릴랜드 주의 락빌, Walter Johnson 고등학교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2년 만에 이민 1세와 2세를 위한 600명 교인의 교회로 급성장 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1993년 락빌에 건물을 구입하고, 1997년 새 건물을 짓고 현재의 장소인 저먼타운에 2001년 2월 19일 입당하였다. 2002년 11월부터 버지니아 지역에서 4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2006년 버지니아에 교회당을 구입하여 현재 2600여명의 교인들이 메릴랜드 저먼타운 캠퍼스와 버지니아 스티어링 캠퍼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담임목사인 김원기 목사가 자동차편으로 40분 거리의 두 캠퍼스를 오가며 직접 설교하고 있다. 한인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목회자 철학으로 새 캠퍼스 건물을 구입하고, 지역담당 사역자를 장기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담임목사가 양쪽을 다니며 목회를 하고 있다.

담임목사인 김원기 목사는 목회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교회지도자들과 함께 2004년 샌디에고의 다중지역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였고, 이곳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교회에 시도하였다. 그는 그의 칼럼에서 다중지역교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역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의 하나는 우리 헬로십 교회가 시도하고 있는 ‘여러 캠퍼스(multi-site)’ 모델이다. 이 모델의 장점은 개척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개척 초창기의 어려운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된 세월을 통해 다져진 그 교회의 강점(strengths)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⁶³⁾

62) 맥클린 바이블 처치 교회 웹사이트(www.mcleanbible.org)

63) 김원기, “생생한 감동을 주는 목회,” n.p. [cited 5 May 2008] Online:

그는 이렇게 말하며 다중지역교회의 당위성을 주장 했다.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무엇보다 버지니아 지역에 교회적으로는 무거운 재정을 투자하여 빌려 쓰던 교회당을 구입한 것이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교포교계의 다중지역교회론의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리하여 메릴랜드 지역의 본 Campus의 교인들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이웃 교회로 이동하기도 했다. 다중지역교회의 장점인 경제적, 목회전략적인 장점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아직도 버지니아 지역 기성교회의 교인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다.

4. 다중지역 교회 사역을 하는 한국교회들

이미 한국에서도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조용기 목사의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기반으로 '지성전'이라는 다중지역교회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신학적인 교회론이나 예배론의 깊은 이해 없이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원하는 신도들의 필요와 열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더 이상 지교회를 설립하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그 후에 한국의 대표적 교회들이 이러한 '지성전' 개념을 많이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의 지명도의 힘입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라는 인상 때문에 이 '지성전' 개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그 영향으로 한국의 교계는 다중지역 교회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추세다. 그러나 발전적이며 긍정적인 발상으로 다중지역 교회론을 확산한 교회도 있다. 예를 들면 지구촌교회(이동원 목사)와 왕성교회(길자연 목사)가 있고, 한신교회(이중표 목사)처럼 이른바 멀티 캠퍼스 개념으로 지교회 보다는 타 지역에 예배장소를 마련하고 한 명의 전담목사가 관장하는 체제를 구축한 교회도 있다. 즉, 현지 지역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체제이다. 이 외에도 기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자발적으로 교인을 떼어 독립된 교회를 설립하는 형태가 있다. 이러한 교회의 예로는 향린교회나 남서울 교회가 있는데, 동일한 교회명을 사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한국교계에서 다중지역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불신자 전도와 다중지역교회의 여러 주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회는 온누리 교회이다. 온누리

리 교회는 ACT29이라는 전략적 프로젝트 하에 다중지역교회를 설립하고 있다. 하용조 목사는 “뉴수파워”라는 인터넷 신문의 인터뷰에서 “온누리 교회와 양재 온누리 교회를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2000-3000명의 규모의 30개 교회를 ‘구축함’으로 세우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⁶⁴⁾ 온누리 교회가 다중지역 교회론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렇다. 먼저는 교회 자체가 지나치게 대형화 되었기에 교회의 의도적 분산을 위해서이고, 둘째는 온누리 교회의 목회 비전을 공유하는 교인들을 통한 온누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관의 확산을 위해서이다. 본 교회의 축적된 재정과 목회역량으로 지교회를 후원하여, 궁극적으로 이 지교회들이 독립된 교회로 발전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목을 시도하도록 돕는다. 이런 다양한 한국교회의 다중지역교회론의 발전을 살펴봄으로서 더욱 긍정적인 다중지역교회론의 모델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제 3 절 다중지역 교회론에 대한 정리

그동안 교회성장의 개념은 교인수의 증가로 건물과 시설의 확장에 치중하는 등의 외형적인 요소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이제 교회성장의 개념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뜻에 맞춘다면, 능동적으로 불신자를 찾아가 교회로 초청하며 그들을 양육하여 세상에 파송하는 다중지역교회론의 핵심적 가치야말로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시대는 교회가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능동적인 선교형 모델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기초를 두고 연구하고 생각하였던 다중지역 교회론을 정리하여 본다. 지금까지 접해왔던 이론들, 문헌 그리고 실제적 사역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해와 전략적 이론을 얻을 수 있다.

1. 불신자를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잘 찾지 않은 불신자를 위한 다중지역 교회전략은 이 시대에 긍정적인 전략이다.

64) “한국 대형교회 지교회 설립 현주소,” *크리스찬투데이*, 2003년 10월 28일자, 교회면. 2008년 6월 인용. Online: <http://biblenara.org/jboard/?p=detail&code=idbsi4&id=134&page=16>.

2. 다중지역교회 전략은 교회가 새로운 사역이나 프로그램 혹은 교회시설을 확장할 때 갖는 경제적, 정신적인 위험부담을 감소시킴으로 더 풍성한 사역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3. 다중지역교회 전략은 통일된 목표 하에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과 첨단 의 현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4. 다중지역교회 전략은 현대 교회개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교회 개혁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다중지역교회 전략은 이 시대의 각 교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회의 새로운 리더십 활용, 평신도사역 활성화를 돕는다.
6. 다중지역교회 전략은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 방법과는 달리 관계성, 연속적, 맞춤형, 평신도 활성화에 핵심을 둔, 한층 더 총체적이고 연속적인 복음화 방법이다.

시대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혁신적인 복음전파 방법들을 만들어 현장사역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로 다중지역교회운동은 충분히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성경적으로 그리고 선교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다중지역 교회론에 관한 더 활발한 신학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좀 더 준비되고 보편화된 다중 지역교회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⁶⁵⁾

제 4 절 다중지역 교회론을 응용한 개척교회전략

1. 버지니아 주총회의 전략 보고서

2005년 9월 17-19일 동안 버지니아 남침례교단 주총회의 Courageous Church 팀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비전에 따라 교회성장과 개혁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하던 중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교회사역 전문가, Lyle Schaller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 가장 핵심적인 조언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⁶⁶⁾

65) Towns, Stetzer, and Bird,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94.

66) Lyle Schaller, Interview by Courageous Church Team, 17-20 September 2005.

가. 1500개의 주 총회 교회들 가운데 같은 교회 형편이나 필요, 관심이 있는 종류의 교회들을 연결하여(Network) 서로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일회성 이벤트를 위한 것이 아닌 연속적인 'Peer Learning Group' 이 필요하다.

나. 교회들에 단순한 자원을 주는 수동적 위치와 자세에서 미래 사역에 동향과 방향에 대한 조언을 주는 선지자적 위치로 전환하라.

다. 교단은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잘 성장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교회들과 연결하여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라.

라. 교회개혁에 있어 다중지역 교회방법과 Indigenous 교회개혁에 집중하라.

마. 일을 할 때 항상 협력 관계의 새로운 관점을 의식하라.

Lyle Schaller의 효과적인 교단사역을 위한 자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교단 사역의 비중을 새로운 세대 교회와 사역이 활발한 교회(Prime Church)에 두어 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들이 쌓은 노하우와 통찰력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개척교회들과 교회성장의 정체기에 머무르는 교회(1500개의 교회 중 75%의 교회들)들에 활력을 주라는 것이다. 이미 대형교회들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때문에 다중지역교회를 통한 교회개혁을 선호하게 되었다, 특별히 현재 교회개혁의 어려운 점을 보강하는 전략으로서 교회개혁의 장벽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2. 다중지역교회전략을 통한 교회개혁

현대의 대형교회들의 대표적 문제점 '극장' 혹은 '체육관'적인 명목상 교인 양산과 헌신과 영원구혼의 대한 열정이 식은 군중의 가까운 대다수의 교인들과 소수의 무리만 모인 물질자원이 부족하고 평신도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그러면서도 목회의 노하우와 좋은 사역 팀이 필요한 가정교회수준의 개척교회가 약한 점을 배제하고 좋은 장점을 살려 다중지역교회 전략으로 불신자전도에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다. 개척교회의 장점인 영혼구원의 열정, 새로운 지역과 환경에 도전하기 쉬운 융통성, 개척자의 헌신과 희생을 통한 목회전력, 그리고 개척자들의 열심과 도전을 새로운 목회사역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잘 성장하는 건강한 대형교회나 중형교회에서 시설과 공간

의 부족함을 교회의 재정적 큰 무리한 부담 없이 교회가 그동안 쌓아온 좋은 훈련 시스템, 많은 자원, 인력을 하나님께서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신자 전도에 매진할 수 있다. 다중지역교회의 궁극적 목적인 불신자 회심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대명제에 가치를 부여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성장의 주기의 대중형 교회목회자가 잘 준비되고 헌신적인 개척자 협력하여 다중지역교회 시스템으로 교회를 확장 하고 더나가 독립교회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다중지역교회 전략을 활용한 교회개척에 대하여 토의하겠다.⁶⁷⁾

67) Towns, Stetzer, and Bird,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74-75.

제 6 장

북 버지니아 지역 한인침례교회 교회개혁 상황

교회개혁이 어렵다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교회개혁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소명 앞에 멈출 수가 없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좀 더 효율적인 교회개혁을 위해서 현재 처한 상황과 개혁환경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새로운 교회개혁 모델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 개혁지역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⁶⁸⁾ 이 장에서는 전략적 교회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한인지역사회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고 지난 한인 침례교회들의 교회개혁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개혁 모델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북 버지니아 지역상황

1. 주위의 사회적 환경

북 버지니아가 속한 워싱턴 D.C. 지역은 미국의 수도권이다. 미국의 행정 연방수도인 워싱턴 D.C.의 면적은 179 평방km이고, 도시 내 인구는 약 65만 명이지만, 북동 지역의 메릴랜드 주와 남서쪽의 버지니아 주를 포함하면 약 400만 명 인구의 대도시권을 형성한다. 워싱턴 D.C.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약칭이다. 워싱턴 D.C.에는 다양한 미연방정부의 행정부 관청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국방과 전지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북 버지니아 지역은 버지니아 주 북쪽의 여러 카운티와 도시를 포함하는 워싱턴 D.C.의 남서쪽을 지칭한다. 매우 다양한 인종분포와 높은 비율의 외국태생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교육수준이 매우 높고 고소득층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⁶⁹⁾

68) 김성진, “목회자여, 지혜롭게 개혁하라,”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57-65.

2. 한인교포사회의 발전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10만 명의 한인주거 인구가 있고 그 중 약 6만의 한인들이 북 버지니아 지역에 몰려 살고 있다. 한인들은 이 지역의 역사를 크게 3 단계로 나눈다. 첫 째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 후 조선의 북미사절단으로 시작된 초기 한인사회(1883-1945)이다. 두 번째는 한인사회의 형성기(1946-1970)로 주미대사관 개관과 6.25 동란의 발발을 전후 기간이다. 이 때는 주로 유학생으로 중심으로 한 500여명의 한인들이 무리를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 러시(1971-2004)기간이다. 이 시기는 한인 교회들의 변성기이기도 하다. 워싱턴 D.C. 지역 한인들의 인구증가는 다음과 같다. 1945년에는 10명, 1960년에는 400명, 1975년에는 20,000명, 1985년에는 50,000명, 그리고 1993년에는 10만 명이 되는 급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 초기에는 메릴랜드 지역에 3만 9천명, 버지니아 지역에 4만 5천 279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현재 2007년에는 메릴랜드 지역에 4만 명, 그리고 북 버지니아 지역에 6만 명으로 집계하나 한인유동인구를 감안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 모인 한인들도 시대별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50-60년대에는 전쟁 고아와 국제 결혼한 여성 유학생들이 이민의 주류였다면 70년대부터는 가난을 벗어나려는 생계형 이민이 증가했다. 88년 올림픽 이후부터는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이민이 잠시 감소되었으나, 90년대부터는 다시 부유층과 교육형 이민이 증가했다.⁷⁰⁾

3. 한인교회의 발전과정

워싱턴 D.C. 지역 교계의 역사는 다른 미국의 대도시의 한인교회들 보다 다소 늦은 편이다. 소수의 한인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집에서 기도회형식으로 모이다가 1951년 10월 14일 32명이 '화부한인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공식예배를 드렸다. 워싱턴 D.C. 지역의 한인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한인 교회를 설립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후 여러 교단의 배경을 가진 한인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다. 한인들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초기 한인 교회들은 도심지역에서 조직되었다가 나중에 한인들의 많이 거주하는 교외로 이주하였다. 그 실례로 현재 2008년 워싱턴 D.C. 도심지에

69) Wikipedia, "Northern Virginia," n.p. [cited 5 May 2008] Online: <http://en.wikipedia.org/wiki/NorthernVirginia>.

70) 워싱턴지구 한인회, *워싱턴 지역 한인사 1883-2005* (Virginia: Fairfax, 2006), 36-39.

는 한인 중심의 교회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초기의 한인 교회들은 미국의 주요 교파인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들과 연계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초기의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목회자의 주도하에 세워졌다. 한인 교회들의 목회자 중심적 교회조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초기의 한인 교회는 한인 사회의 사회 활동과 종교 활동을 같이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 후 한인 사회가 커지면서 한인회나 상조회가 사회활동의 큰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한인 교회들은 사회봉사와 친목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D.C. 지역의 한인 교회들도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세워졌다. 1970년 이후 워싱턴 D.C. 지역 한인 교회 중 장로회와 침례회들이 괄목한 만한 수적 성장을 이루었다. 나머지 교파에 속한 교회들도 전반적으로 수적 성장을 보였으나 이 두 교파에 비해서는 느린 성장이었다. 이 지역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1970년대 이민러시 이후에 조직되었다. 대부분의 개별 교회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다. 2001년 조사에 의하면 20개의 개신교만 정기적 예배 활동수가 100명이 넘고 신자가 300명에서 500명의 숫자가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대다수 교회의 성도수는 그 미만이다. 한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성장하는 교회들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장하며 대형화를 이루어 가고, 새로 통합하는 교회들과 개척하는 교회들로 교계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2005년 북 버지니아 지역이 포함된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한인 교회를 약 450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심히 영세한 교세로 인하여 교역자들이 힘들게 목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⁷¹⁾

제 2 절 북 버지니아지역 한인 침례교회 개척교회 현황

북 미주 지역의 한인침례교회는 약 700개로 집계되어 있다. 그 중 많은 숫자의 한인 침례교회들의 시작은 미국의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회의 복음전파를 위한 교회개척을 우선하는 교단전략으로 이루어졌다. 워싱턴 D.C. 지역권의 한인 침례교회들의 시작은 북미 한인 침례교회의 최초의 시작이기도 한다.⁷²⁾ 필자는 교회개척 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북 버지니아의 교회개척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고자

71) 권오균, "종교활동," 워싱턴지구 한인회 편, *워싱턴 지역 한인사 1883-2005*, 412-418.

72) 문대연, *미국침례교회의 현황과 전망* (서울: 바울사, 1988), 17-18.

한다. 먼저 1970년대 말 이전을 개척 초기로, 1970대 이후 한국계 이민러시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개척된 시기를 침례교회 발전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 이후 대형교회 출현과 함께 교회개척이 침체된 침례교회 안정기로 분류해 보았다.

1. 침례교회 개척 초기(1970년대 말 이전)

미주의 최초의 한인 침례교회가 개척된 것은 1956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지역에서였다. 이 최초의 한인 침례교회는 '제일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후에는 '워싱턴 한인침례교회'로 불리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남침례교단의 한인 최초 국내선교사인 김동명 목사 부부가 미국에 유학 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를 세웠다. 1971년에는 문대연 목사가 미주에서 세 번째로 산호세에 산호세 침례교회를 시작했다. 워싱턴 지역 북 버지니아지역에서는 1972년 박관빈 목사의 인도 아래 버지니아 한인 침례교회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는 북 버지니아 지역의 한인들을 포함해서 워싱턴 D.C.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약 5,000명 내외로 추산했다. 그때까지는 상대적으로 많은 한인침례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상태였다.⁷³⁾

2. 침례교회 발전기(1970대 말부터 1990년 초까지)

미국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1960년에 한인 이민자는 1,507명 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 1970년대에 접어들어 1만 명을 돌파하는 한인인구의 폭발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1975년에 북 버지니아를 포함한 워싱턴 지역의 한인인구의 통계는 20,000명 이었다. 1990년에는 80,000명에 도달하기도 했다.⁷⁴⁾ 버지니아 주의 이민자 생활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2000년 인구조사에서 외국태생 거주자는 237,677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비율은 전체 카운티 거주민의 24.55%에 이른다.⁷⁵⁾

북 버지니아지역은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기술직 직장의 밀집, 그리고 좋은 주거

73) 워싱턴지역 한인회, *워싱턴 한인사 1883-2005*, 36.

74) 워싱턴지역 한인회, *워싱턴 한인사 1883-2005*, 37.

75) Commission of The Virginia General Assembly, *Virginia's Foreign-Born population by Locality for 1990 and 2000 Report* (2004), 40.

환경으로 인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특별히 한인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인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한인 교회의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한인 침례교회들이 개척되었다. 1979년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안디옥 침례교회가 두 번째 한인침례교회로서 남침례교단의 큰 협조를 얻어 개척되었다. 그 이후 북 버지니아 지역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알링톤, 알렉산드리아, 페어팩스 지역에 하나 둘씩 한인 침례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했다. 버지니아 남침례회 주총회 통계에 의하면 1999년 말 버지니아 주 전지역에 43개, 북 버지니아 지역에만 30여 개가 넘는 한인 침례교회들이 개척되었다.⁷⁶⁾

3. 침례교회 안정기 (1990년대 이후)

1990대 이후에는 교회 개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비율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미국 생활의 정착기에 들어간 교포들은 교회로 나아오던 발걸음을 주위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돌렸다. 활성화되던 교회 개척이 정체현상에 들어간 시기이자, 이미 개척된 교회 가운데 소수의 교회가 급성장하여 안정기에 들어간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개척 교회들 중 개척한 지 2-3년이 지나도 자립할 능력이 없어 결국 문을 닫거나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교회수	새로 개척된 교회 수	매 주일 출석 30명 미만인 교회 수	매 주일 출석 300명 이상 교회 수
1975년 대	1	1	NA	0
1980년 대	8	7	NA	1 (13%)
1985년 대	17	9	NA	2 (12%)
1990년 대	29	12	12 (41%)	2 (7%)
1995년 대	32	3	14 (44%)	2 (9%)
2000년 대	35	2	19 (61%)	3 (9%)
2005년 대	39	8	20 (51%)	4 (10%)
2007년 현재	42	3	22 (52%)	5 (12%)

<표1> 버지니아 지역 한인침례교회들의 개척 상황에 대한 변화 추이(1975-2007)
(자료는 미주 한인침례교회 협의회 수첩과 버지니아 주 총회 연간 보고서)

76) 남 침례회 버지니아 연구회, 남 침례회 버지니아 주 총회 보고서 (2008), 40.

위의 표를 보면 북 버지니아 지역의 한인 침례교회들의 몇 가지 동향을 알 수 있다. 첫째 개척교회숫자가 80년대와 90년대에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90년대 이후 교회 숫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 몇 개의 교회가 주일 예배 참석자가 평균 300명 이상인, 미국 교포 사회에서는 큰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90년대 중반부터 미자립 교회로 머무는 것을 볼 수 있고 오히려 그 숫자는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북 버지니아 지역의 한인 침례교회들도 성장하는 소수의 큰 교회와 성장하기위해 애쓰나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교회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 3 절 성공적인 교회 개척과 실패 사례 분석

교회의 실패와 성공을 개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 개척 후 3년 동안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와 개척 후 3년 동안 급성장한 교회를 성공한 교회와 실패한 교회의 실패로 보고, 1990년 말 이후부터 북 버지니아 지역의 한인 침례교회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교회들을 찾아 조사해 보았다.

1. 성공한 교회 사례들⁷⁷⁾

가. 한빛 지구촌 교회

1996년 12월 워싱턴 지구촌 교회의 버지니아 지역의 교구를 독립하여 100여 명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 사역자였던 장세규 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하여 독자적인 지구촌 교회가 북 버지니아 지역에 탄생되었다. 장세규 목사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평신도 시절부터 목회자가 될 때까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 이 교회는 개척시 부터 '비교인에게' 접근하는 사역에 집중한 결과 기독교 문화선교에 기여하는 독특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셀 사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크게 부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건물 사용에 불편을 겪게 되었고, 이

77) 워싱턴지역 한인회, *워싱턴지역 한인사 1883-2005*, 93-94.

에 2000년 비엔나 지역의 한빛 교회와 통합하면서 '한빛 지구촌'으로 개명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2005년 약 1000명의 교우들이 70개의 셀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120명의 평신도가 목자로 섬기고 있다. 개척교회로서 10여 년 동안 100명에서 10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한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첫째, 이미 잘 알려지고 검증된 지구촌교회 목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장세규 목사의 검증된 리더십과 함께 개척 초기부터 모 교회인 워싱턴 지구촌 교회와 후원자로부터 큰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 필그림 교회

1997년 메릴랜드에서 손형식 목사가 20여 가정을 중심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개척자 손형식 목사는 1970년 초부터 평신도로서 침례교회를 섬겨왔다. 그는 일찍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원 목사가 담임 목회자로 시무할 때에 음악사역자로 열심히 봉사하였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었다. 2001년에는 많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버크 지역에 교회를 구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이라는 6대 목표 하에 열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집요한 열정으로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이다. 복음의 감격도 아는 사람이다. 필그림 교회는 2007년에 이미 매주 500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오랜 이민자 생활을 경험했고,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손 목사의 모습은 많은 북 버지니아의 이민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다. 성광 교회

성광교회는 2001년에 장년 30명 그리고 어린이 10명으로 시작되었다. 개척자 임용우 전도사는 북 버지니아의 오랜 전통이 있는 안디옥 교회의 집사장으로 여러 해 봉사하다가 신학을 마친 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 성광 교회를 개척하였다. 성광 교회는 개척 후 일 년 만에 100명이 넘는 성인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2007년 현재 매주 500명이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짧은 역사를 가진 개척 교회로서는 많은 재정을 세계 선교에 드리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 놀라운 성장의 큰 요인은 담임목회자의 영적 리더십과 교인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는 목회에 있다고 하겠다.

2. 실패한 교회 사례들

많은 사례들의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가진 교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가. 사례 1

L 목사는 40대 초반의 목회자로 한국에서 신학훈련을 마치고 이곳의 대형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수 년 동안 봉사하다가 개척자 가정과 다른 한 가정을 중심으로 개척자의 집 응접실에서 모임을 시작하였다. 주 총회에서 제공하는 ‘개척자 기본훈련’을 통해 개척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교회 장소를 찾던 중, 개척자의 집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신흥 주택가의 오랜 전통이 있는 침례교회 교회당을 빌려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자가 인품도 좋고 열정도 있으나 교회 개척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출석교인 10명을 넘지 못하는 미자립교회로 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기성교회 목회자 스타일의 고정적인 이미지로 새 신자에게 접근하므로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사용하는 교회당 위치가 아주 부유한 신흥주택가라 새로 이주하는 한인 이주자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나. 사례 2

N 목사는 50대 중반 목회자다. 그는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큰 비즈니스와 신학공부를 병행하였다. 그 후 작은 교회의 협동사역자로 봉사하다가 교회의 내부분제로 어려움을 겪고 몇 명의 교인들과 신학교 재학생 전도사 몇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개척자 자신의 재력과 신학교 훈련을 받고 개척 교회를 하고 있다. 목회를 쉽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비즈니스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 이제 교회개척 4년이 가까워지면서 20여명의 성도 숫자를 넘기지 못하고 자책에 들어가고 있다. 경제적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교회성장과 활성화로 매우 고민하고 있다. 실패의 주원인은 개척자가 개척에 대한 소명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한 데에 있다. 또한 신학 공부를 마치면 교회 개척자로 사역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과 모든 인간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로 인식하는 부적절한 목회관에서도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 사례 3

C 목사는 30대에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왔다. 그 후 신학공부를 하면서 북 버지니아 지역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 하던 중 새로운 담임목사의 부임으로 교회를 사임하고 40대 중반에 몇 가정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다. 교회를 개척한 장소가 한인들이 새롭게 이주하는 지역으로 지역의 선정은 좋았으나, 예배 처소를 구하기 어려워 결국 가정집을 구입하고 개조하여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 개척자는 성경공부와 심방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열심히 사역하므로 25명 정도의 교인들의 모임이 있으나, 예배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교인들을 모으고 교회가 자립하는 데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 개척자 자신은 열정도 있고 성실하며 사명감도 있으나, 교회가 성장하기 부적절한 환경과, 주위의 많은 한인교회와 경쟁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여 자립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제 4 절 새로운 교회개척의 패러다임

1. 교회개척의 필요성

1970대 말부터 시작된 북 버지니아 지역의 이민러시를 통해 몇몇 한인교회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들의 교단적 배경은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이었다. 이 지역의 침례교회 중 현재 4곳의 교회가 500명 이상의 교인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점점 더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교회들의 사회봉사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우수한 교회 프로그램을 찾아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큰 교회는 더욱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욱 성장하기 어렵게 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 대 북버지니아 지역 통계에 의하면 이 지역에 한인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건강한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 특별히 회심전도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특히 교회의 연령이 20-30년 정도 되는 기성 교회들 중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의 정체기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안이 시급하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개척교회의 전성기는 지나가고, 1990년대부터는 교회 개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했으며, 1990년대 말부터는 교회 개척의 극심한 어려움의 시기에 들어

갔다. 본 연구자는 교회 개척이 어려운 이 시대에도 성장주기에 있는 이 지역의 건강한 침례교회들이, 준비되고 헌신된 교회 개척자들을 수용하여 이들과 적극적인 동역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으로 교회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 교회개척의 새로운 대안

복음은 변질될 수 없지만 복음의 전달 방법은 변화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 개척의 본질과 동기는 변질될 수 없지만 교회 개척의 방법은 개척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과거 우리 선배들은 1960-70년대에 천막이나 지하에서 헌신과 희생으로 위대한 교회를 세웠지만, 이 시대의 개척자들은 현대 시대의 문화적 욕구와 사회적 변화로 인한 필요를 무시한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교회 개척이 사명인 개척자에게는 새로운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⁷⁸⁾ 본 연구자가 조사한 '북 버지니아 지역의 교회개척 변화상황 추이'를 참조하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소위 성공적인 교회 개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에서 잘 알려진 대형 교회 출신들이고, 그러한 배경으로 그들에게는 확실한 Supporting 네트워크가 준비되었고, 교회 사역의 공간인 자체 건물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보유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개척한 장소도 한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사는 곳이었다. 성공한 개척자들은 오랜 미국생활과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으로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덕분에 스스로 개척을 지원하는 경제적 자원도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실패한 개척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교회 개척을 위해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교회 개척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좋은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 더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건강한 교회, 재생산하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이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도 필요하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는 새로운 교회 개척의 대안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78) 김성진, “목회자여, 지혜롭게 개척하라,” 57.

가. 교계의 지도자급인 목회자들이 전반적인 교회 개혁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인식, 교회 개혁의 진정한 의미, 목회자 성공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기독교 교계의 목회 성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지역사회의 복음전파를 선교적 마인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영적 필요에 좀 더 민감하여야겠다.

대전의 새누리 교회는 한국의 침례교회 분립개혁의 좋은 사례다. 창립자 김동명 목사에 의해 제안되었다가 후임자인 안진섭 목사에 의해 분립 개혁되었다. 분립 개혁의 방법은 모 교회에는 새로운 목회자를 담임목사를 세우고, 담임 목사는 새로 제2의 새누리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다른 경우의 예로 타교단인 한국의 장로교회 김동호 목사가 시무하는 한국의 승의 교회는 5,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1,000명이모이는 자발적인 4개의 중형교회로 나누어 '발전적 해체'의 방법을 통한 한국 교계에 교회 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새로 생긴 4개의 교회가 분리개혁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하며, 신선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교회 개혁의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⁷⁹⁾

나. 다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교회 개혁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와 개혁자의 자질에 대한 평가다. 자립하지 못하는 많은 개혁교회의 큰 부분은 개혁자 자신의 부족한 준비와 부적절한 인격이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교회개혁의 동기다. 왜 교회를 개혁하고자하는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나 선교를 위한 전략수립에서나 교회개혁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막연히 동경해서 이루어진 교회개혁은 지금의 한국교회를 어둡게 한다.⁸⁰⁾

적절한 교회개혁자를 부르고 검증하는 일에 있어 믿음의 공동체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개혁을 개인적이고 지엽적인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총체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79) “한국 승의교회 ‘발전적 해체,’” 한국일보, 2008년 11월 25일자. 문화면. 2008년 12월 인용. Online: <http://www.koreatimes.com/article/488567>.

80) 김성진, “목회자여, 지혜롭게 개혁하라,” 60.

다. 교회 건물과 시설에 대한 실천적 이해와 소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이다. 건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필요와 사역의 공간으로서의 건물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그 동안 교회들은 많은 재정을 건물에 투자하여 소유하고 교회당 공간만 있으면 만족해하는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미국의 일부 대형교회들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나 규모를 확장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는 변화를 추구하는 ‘다중지역교회’ 모델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현 교계의 흐름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한다.⁸¹⁾

필자는 오늘날 교회들의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중지역 교회론’을 응용하기로 한다. 먼저 소형교회와 대형교회의 단점을 살펴본다. 소형교회는 선교 자원이나 교육 시스템에 부족함이 많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도 미미하다.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은 고립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된 상태다. 한편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은 개교회의 대형화와 함께 나타나는 교인들 간의 교체와, 헌신, 교육의 문제들을 수반한다. 목회자는 목회에 있어서 개교회의 양적 성장만을 우선순위에 들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양육하는 질적인 목양 사역에도 집중해야 한다.

이에 필자가 제안하기 원하는 교회의 개척과 활성화를 위한 모형은 이렇다. 먼저 성장주기에 있는 역동적인 중형교회가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창의적인 교회 개척을 시도한다. 이러한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 개척의 인도자와 조정자가 된다. 다음은 본교회 목회자와 함께 새로운 교회개척 비전을 같이 공유하여 함께 동역하고자하는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로, 여러 예배 장소 중의 하나의 교회로 만나는 큰 의미의 한 교회 소속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중지역교회” 개념을 활용한 지교회 시스템의 특징은 본교회와 목회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면서, 각 지역교회의 지역과 교인 대상에 따라 독자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더나가 세계적 선교나 큰 사역을 위해 협력하고 교회의 좋은 사역자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거쳐야 하는 몇몇 단계들이 필요하다. 다중지역교회 모델을 응용한 새 모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81) 이해동, “찾아가는 교회, 멀티사이트처치(Multi-Site Church),” n.p. [cited 5 October 2008] Online: <http://newsmission.com/news/print.asp?seq=16764>.

제 7 장

북버지니아에서 다중지역 교회론을 적용한 교회개혁 전략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에 헌신적인 교회개혁자들이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에 의존해서 개인적인 열심과 헌신만으로 교회 개혁에서 교회 성장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현실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 10년간 기독교인 증가율이 1.6%에 불과한 교회 불신 시대에서 교회를 개혁하는 시대이다.⁸²⁾ 오늘날 교회 개혁은 과거의 방법만을 의존할 수는 없다. 새로운 교회 개혁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먼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어야 하고, 실천가능하며, 현장에서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현장에서 연구하고 조사하며, 지역의 현장에서 관찰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개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의 기초는 북 버지니아 한인교회 현재 상황과 이 시대의 교계의 큰 영향력을 보여준 다중지역교회 개혁전략에 있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교회개혁의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북 버지니아 한인 침례교회 교회개혁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다중지역교회 이론을 적용한 새로운 교회개혁 전략을 제안한다.

제 1 절 다중지역교회 개혁을 위한 준비

1. 다중지역 교회개혁에 대한 관심

2005년 1월 17일 5명의 개혁교회 목회자들이 모였다. 모임에 참석한 목회자의 대부분은 40대 초반의 목회자들로 북 버지니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혁한 지 3-5년 미만 이 되었으며 매주일 출석 20-30정도 되는 소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대화의 주된 내용은 개혁교회의 활성화 방법이었다. 참여한 목

82) 김성진, “목회자여, 지혜롭게 개혁하라,” 59.

회자들의 공통적 의견은, 이 시대의 교회 개척은 매우 어렵지만 목회자의 궁극적 사명인 복음전파를 위해 새로운 교회개척 이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교회개척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후 서너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 결론의 단계에서는, 버지니아 침례교단에서 교회개척 전략가로 사역하는 본 연구자의 제안으로 교단에서 현재 연구하는 다중지역교회사역에 대한 이론을 소개 받고 참고 문헌들을 읽고 함께 토론하게 되었다.⁸³⁾

현재 북 버지니아 지역의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겪는 두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 일부 성장하는 교회들은 교회 예배당의 공간적 제한과 주차장의 부족으로 매주 모여드는 예배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예배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임시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이웃 주민과의 마찰을 야기하게 된다. 되고, 이는 교회를 증축할 때 카운티 정부로부터 불리한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여러 외부적인 조건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한다. 다른 한편의 많은 교회들은 오랫동안 소수의 교인들만이 참석하는 소규모의 교회들이다. 이들 교회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 있다. 이 오랜 성장의 정체기 동안 개척자와 가족들은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아 있던 충성스러운 교인들도 하나 둘 씩 주변의 성장하는 교회로 떠나게 된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매우 피상적인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한다. 목회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열심을 내지만 현실을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필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교회개척과 활성화 방법을 연구하고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버지니아 지역의 침례교회들에게 순방, 설교와 대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중지역교회를 자연스럽게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한인 교계 내에는 다중지역교회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주도적인데, 이는 한국대형교회의 '지성전' 개념의 영향 때문이다.⁸⁴⁾ 그러나 본 연구자는 꾸준히

83) Virginia Baptist Mission Board, "Multi-Site Resource" (Richmond, Virginia, 2007, www.vbmb.org).

84) 박득훈, "지성전-위성교회, 지교회, 분교회로 불리는 대형교회의 복수교회당체제," n.p.

다중지역교회의 이론을 개교회 목회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힘쓰고 구체적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다중지역교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개교회의 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다중지역교회를 연구하는 모임(Think Tank)을 구성했다.

2. 다중지역교회 연구모임(Think Tank) 구성

본 연구자의 제안에 따라 다중지역교회론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와 침례교단의 지도자들이 2006년 3월부터 일 년 동안 매월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구체적으로 북 버지니아 지역의 교회개척과 활성화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가. 새로운 교회개척과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처음 모임에서는 현재 한인 교회들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화 중 다루어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교회의 수평이동과 소형교회의 침체
- (2)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 (3) 미숙한 목회자의 과도한 양산
- (4)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민교회의 무분별 분열
- (5) 교회들이 지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교회론
- (6)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한 협력체제
- (7) 좋은 목회자와 멘토의 부재

결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적이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가? 바람직한 방향은 건강한 교회이고 불신자전도에 중점을 두는 교회성장이다. 그리고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무한한 평신도 자원을 활성화하는 팀 사역이며 궁극적으로 목회자의 큰 목표는 하나님나라확장이라는 성경적 패러다임이다.

나. 다중지역 교회개척 전략에 대한 이해

두 번째 모임에서는 다중지역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이 이론의 배경을 소개하였다. 이 이론의 주요 내용은 1984년 교회성장학자 Elmer Town이 자신의 생각을 몇 명의 교회성장학자들과 나누는 가운데서 시작되었다. 그는 다중지역교회이론을 새로운 개발 지역을 위한 교회개척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 개척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먼저 성장하는 교회가 새로운 지역에 위성 캠퍼스를 세우고 본교회의 성장 노하우, 프로그램과 물질 등을 지원한다. 시간이 지나 새로 개척된 위성캠퍼스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교회 스텝 중에서 혹은 외부에서 개척자를 청빙하여 개척된 교회를 분가시키는 전략이다.⁸⁵⁾

다. 중소형 교회에서도 다중지역이론을 시도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모임에서는 중소형교회에서도 이러한 다중지역이론의 시행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토론 했다. 미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매주 예배자가 200명 미만인 중소형의 교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들도 다중지역 교회론을 적용하여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대답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교회들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작은 위험 부담을 갖고 교회의 전략 지역에 다른 시간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말이나 주중 예배이다.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반응에 따라 이러한 시도를 점차 확대할 수 있다.⁸⁶⁾

라. 다중지역이론을 처음으로 시도할 교회 찾기

네 번째 모임에서는 북 버지니아 침례교회들 중 다중지역교회의 전략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회들을 찾아보았다. 참고로 하는데 사용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⁸⁷⁾

- (1) 교회의 성장으로 새로운 장소나 공간이 필요하다.
- (2) 주차장 장소가 부족하여 매주 어려움을 겪는다.
- (3) 교회 성장과 공간 부족으로 다른 시간대의 예배를 만들려고 한다.

85) Tom Cheyney, "The Multi-site Church Planting Strategy," n.p. [cited 5 October 2008] Online: <http://lanecorley.files.wordpress.com/.../the-multi-site-church-planting-strategy>.

86) Jim Tomberlin, "Joining the Muliti-Site Revolution," *Willow*, Spring 2008, 17.

87) Tomberlin, "Joining the Muliti-Site Revolution," 17.

- (4) 한인이 많이 새롭게 모이는 새로운 지역에 사람들을 전도하여 한다.
- (5) 교회에 유능한 사역자가 많아 교회의 분립 개척도 고려한다.
- (6) 교인들 가운데 20 마일 이상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
- (7)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과는 다른 문화권이나 사회적 신분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역을 하고 싶다.
- (8) 이 시대 발달한 정보산업과 미디어를 잘 활용하여 사역의 극대화를 이루고 싶다.
- (9) 우리 교회의 체계화된 조직과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활용하여 교회사역의 활성화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고 싶다.
- (10) 현재 매주 교회 주일예배 인원이 평균 300명을 넘고 있다.

마. 다중지역교회 전략을 실천할 팀 만들기

(1) 다중지역론에 동참할 교회선정

먼저 제적 교인의 수가 500명 이상인 이 지역의 침례교회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다섯 교회를 선정하고, 그 중에 일차적으로 한 교회를 선정했다. 현재 이 교회는 교회 시설과 주차장 문제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위 카운티와 주민들과 교회의 증축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다. 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60대 초반의 담임목회자가 시무하고 있다. 그는 워싱턴 지역에서 생활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으며, 오랫동안 워싱턴 지구촌 교회의 음악 사역자로서 평신도 때부터 충성스럽게 헌신하였다. 늦은 나이에 켄터키 남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10년 전 자신의 처음 목회지인 현 교회를 개척하여 새 교회당을 구입하고 현재 지역으로 옮겼다. 현 교회의 장소는 버크라는 지역으로, 한인거주지의 중심이자 북버지니아의 중류층 주택가이다.

(2) 다중지역교회의 지역담당 선정(Campus Minister or Site Minister)

이 지역의 목회자중 30-40대 젊은 목회자나 현재 본 교회의 전담 사역자 가운데 다중지역교회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복음전파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한 후보 사역자 여러 명을 훈련시키기로 했다. 평가 기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⁸⁾

88) Virginia Baptist Mission Board, *Church Planter Assessment Report* (2006), 40.

- (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음
- (나)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 능력
- (다) 불신자들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
- (라) 배우자의 협조
- (마) 동역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 (바) 자신을 발전시키고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
- (사)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 순발력과 적응력
- (아) 굳건한 믿음과 인내력
- (자)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

(3) 실행위원회 (Planting Task Force)의 구성

다중지역교회론 연구모임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관리하고 총괄할 조직을 구성한다. 조직원들은 홍보담당 전문가, 지역의 전문가, 교단의 전문가 그리고 동참할 사역자 대표와 주체가 되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이다. 사역자들의 중요한 의무 조항들을 명시하고, 분야별로 사역 지침서를 만들고 사역을 도와줄 후원시스템을 조직한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체적인 그림인 Master Plan을 작성하고 자세한 행동 계획과 평가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다.

3. 다중지역교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원리

다중지역교회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회 개척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같이 연구하는 동안에도, 이 사역에 동참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개척자들 가운데 이 새로운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개척을 시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중지역 교회개척의 활성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방안과 원리는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 목회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난 2005-6년 동안 미남침례 버지니아 주 총회는 산하 1,500 개의 교단교회들을

위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목회의 창의적인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인터뷰를 한 후 이를 분석하고 연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들을 “프라임(Prime) 교회”라고 명칭하고, 이 교회들이 현재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공통적인 요인들을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인 요인들에는 담임 목사의 비전, 리더십 은사, 교회를 섬긴 기간 등이 있다. 새롭고 혁신적인 목회자의 패러다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회성장 전문가 피터 와그너 교수는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 교회의 담임목사라고 했다. 현재 미주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들이 사역의 대상인 세상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무지한 것이다. 목회자가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과 목적을 세우며, 추진력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⁸⁹⁾

(1) 새로운 교회개척에 대한 확신

다중지역교회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구령사업이다. 교회개척의 궁극적 목적도 영혼구원이다. 교회개척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교회 성장학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이 시대에 다중지역교회론을 적용하여 교회개척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확고한 비전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중지역교회의 성공의 여부는 담임 목사의 불신자의 영혼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2) 변화에 대한 수용태도

다중지역교회를 시도함에 있어, 지금까지 익숙했던 교회생활과 다르게 느껴거나 일부 부정적인 다중지역교회의 인식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변화를 추구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목회현장에서 쉽게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앞장서는 목회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융통성과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특별히 목회자의 태도는 다중지역교회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잠

89) 김성진, “목회자여 지혜롭게 개척하라,” 59.

23:7)”라는 말씀처럼, 목회자의 긍정적 태도는 긍정적인 결과에 기여하나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행동과 결과에 기여한다.

(3) 효과적인 전달자

유능한 지도자는 훌륭한 전달자이다. 새로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지도자는 동역자들, 성도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다중지역교회의 필요성과 목적, 원리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닌 일체감, 임무수행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다중지역교회 개척의 생명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유능한 지도자 개발 프로그램

구약의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 많은 무리를 이끌어가며 힘들어 하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리더의 재생산과 위임의 기술을 제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도자 개발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교회 시스템에서도 필요하지만, 사역의 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더 많은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 다중지역교회의 시스템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다중지역교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재력 있는 일꾼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며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는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간단한 것 같지만 종종 다중지역교회 사역의 “지교회(site campus)” 현장에서 소홀하게 취급되기도 한다.⁹⁰⁾

(1) 필수적 다중지역교회 사역자들

다중지역교회론에 기반을 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의 조직과 접근 방법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 다중지역교회 사역 책임자(Multi-site director)

다중지역교회 사역 책임자는 다중지역교회 사역을 교회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람이다. 다중지역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직분이다. 다중지역교회 사역 책임자는 새로운 지교회(Site campus)를 신설할 때마다 모든 실무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본교회와 각 지교회를 연결하고, 사역을 조정한다.

(나) 지교회 담당 목사(Campus pastor)

지교회 담당 목사는 새로운 지교회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목회자다. 본교회

90) Surratt, Ligon, and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143.

(Primary Campus)의 핵심가치와 이상을 접목시키고, 핵심그룹을 발굴하며, 새로운 리더들을 개발하는 책임자다. 보통 다음과 같은 자격이 요구된다. 교회 핵심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교회 담임목사의 리더십에 충성하는 사역자다. 사역팀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교회(site campus)의 교인들을 담임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여야 한다.

(다) 예배 인도자

예배 인도자는 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직분이다. 이 예배 인도자는 본교회의 음악 담당 사역자와 잘 협조하여 지교회에 적합한 예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창의력과 융통성,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한다.

(라) 그 밖의 주요 사역자-어린이, 청소년, 소그룹, 제자훈련 담당

처음에는 자원봉사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 봉사 직분을 사례 직분으로 옮겨가며 사역의 전문성을 개발한다.

(2) 지도자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 제안

성공적인 다중지역교회의 개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잘 훈련되고 헌신된 사역자들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전략적으로 좋은 사역자들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사역자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몇 가지 실제적인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¹⁾

(가) 가장 좋은 지도자들은 현재형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현재의 교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나) 좋은 지도자들은 소그룹에서 발견되고 훈련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 좋은 지도자 개발은 인간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라) 지도자 개발은 각 지교회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개발 프로그램은 각 지교회의 필요와 상황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바) 장기적으로 좋은 지도자를 개발하기 위해 속성의 과정보다는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91) Surratt, Ligon, and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145-149.

다. 효율적인 교회 사역구조

성공적인 사역을 행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직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⁹²⁾ 다중지역교회 사역에서는 조직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다중지역교회 운동은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 벗어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중지역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헌신적이고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고, 이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조직도 구성되어야 한다.

(1) 참여의 중요성

교인들을 방관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세우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사역의 참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 유익한 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교회는 새신자가 교회에 발을 들여 놓는 때부터 그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혹은 새신자 중에 성격이나 형편상의 이유로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담임 목회자는 최종의견만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성공적인 다중지역교회 사역을 위해 지교회 목사(Campus pastor)와 지교회 사역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는 제도가 정립되어야 전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는 같더라도 지교회의 목회환경에 맞게 사역의 방법과 모습은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다.

다중지역교회의 담임목사는 에베소서 4장 11-12절의 원리를 되새기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경적으로 온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세워주어서 평신도들이 복음사역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역현장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중지역교회가 복수의 지교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평신도사역자가 필요하다. 존 러스킨은 “사람은 혼자서 열심을 낸다면 그저 작은 일만 해낼 수 있다”라고 했다.⁹³⁾ 훌륭한 지도자는 복음을 위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

92) George Barna, *성장하는 교회 9가지 습관 (The Habits of Highly Effective Churches)*,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58.

93) Hans Finzel, *리더십 파워 (Empowered leaders)*, 김재영 역 (서울: 디모데, 1998), 22.

을 구비시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2) 융통성 있는 조직

조지 바나는 “성공적인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맞추고 교회조직과 구조를 적절하게 변화시켜야한다”⁹⁴⁾라고 주장한다. 많은 교회들은 필요에 따라 구조와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구조와 정책에 필요를 맞추어 나간다. 다중지역교회의 특성상 본교회의 조직과 구조가 새로 세우는 지교회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 또한 다중지역교회의 전략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교회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구조를 갖는다. 조지 바나는 성공적인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감한 변화를 통해 결정권을 분산하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며, 교인의 자율을 존중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사역에 임하게 한다고 말한다.⁹⁵⁾ 궁극적으로 다중지역교회 조직의 초점은 교회의 건물, 전통적인 조직, 프로그램화된 교회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는 고수하되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있어야 한다.

제 2 절 필그림 교회를 중심으로 다중지역 교회개척을 위한 총체적 계획

1. 서론

가. 필그림 교회의 배경

(1) 1997년 손형식 목사를 중심으로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에서 20개 가정이 참석하여 첫 예배를 드렸다. 1998년 창립예배를 드리고 미남침례회에 가입하였고, 2001년 5월 버크지역 현재의 교회건물을 구입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변화, 치료, 회복, 축복의 6대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6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여 2007년 말에는 매주 500여명이 참석하는 교회로 부흥했다.

(2) 2008년 현재 매 주일 세 번의 주일 예배가 있다. 1부 150명, 2부 350명, 3부는 영어예배로 120명 정도 참석한다. 본당에는 400명을 위한 좌석이 있으나 주차장

94) Barna, *성장하는 교회의 9 가지습관*, 64.

95) Barna, *성장하는 교회의 9 가지습관*, 64.

은 200대 이상을 수용하지 못한다. 2004년 시작된 교육관 공사는 2008년에 완공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육 시설을 필요로 한다.

(3) 미국 인구 통계의 의하면 본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워싱턴 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그리하며 매주 이주하는 한인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4) 본 교회는 매월 평균 10개 가정이 교회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시설은 교회성장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교회 주변에는 중류층 이상의 다수의 백인 가정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은 카운티에 소음과 교통 혼잡의 이유를 들어 교회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한 상태다.

(5) 담임 목회자는 오랜 미국생활의 경험과 이해를 중심으로 하여 이민자를 돌보는 목회와 복음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설교로 많은 초기 이민자들에게 삶의 위로와 신앙의 확신을 주었다. 그리하여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목회를 배우려는 신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나. 대안으로서의 다중지역 교회개척

모교회의 담임목회자가 다중지역교회 연구모임에 참여하던 중, 자신 교회가 현재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새로운 비전으로 발전시켜 다중지역교회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남 침례교 버지니아 주총회의 새로운 교회개척 전략의 파트너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북 버지니아 지역에서 새로운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센터빌-매나사스-게인스빌 지역을 대상으로 제2의 필그림 교회 캠퍼스인 '센터빌 필그림 교회'를 시작한다.

다. 버지니아 주 총회와 North Star Association의 후원으로 다중지역교회 개척에 관심 있는 사역자를 선발하고 훈련하여 다중지역교회 개척의 캠퍼스 담당 목회자나 사역자로 파송한다.

라. 필그림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다중지역교회 개척운동을 새로운 전략적인 교회 개척운동의 시험으로서 확산한다. 앞으로 향후 5년간 관찰하고 평가한 후 확산

하는 전략을 지향한다.

2. 계획을 만드는 목적

필그림 교회 센터빌 캠퍼스를 세우기 위해 Master Plan을 만드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필그림 교회 센터빌 캠퍼스를 본 연구자는 “센터빌 캠퍼스” 지칭한다.

가. “센터빌 캠퍼스”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나. 2009년부터 시작할 다중지역이론을 적용한 교회 개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들을 묘사한다.

다. “센터빌 캠퍼스”에 참여하는 사역자, 협력기관, 본교회 평신도 지도자와 교인 그리고 북 버지니아 지역의 교계에 온전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을 원활히 한다.

3. 지침원리

다음과 같은 원리와 원칙이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이 되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초가 된다.

가.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능력과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사역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나. 우리의 목적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불신자를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방법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을 하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성경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다. 우리의 핵심가치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여러 지역교회 혹은 캠퍼스를 세우는 다중지역교회를 추구한다. 우리는 흩어진 여러 지교회들과 같은 핵심가치, 리더십, 전략적인 방법, 재정을 공유한다. 앞으로 새로운 지역의 교회개척에 다중지역교회 개척 전략을 적용한다.

라. 믿음의 역사

우리는 믿음을 갖고 현재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에 도전한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한다.

마. 기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한다(잠 16:9). 우리 사역 중에 기도사역은 항상 최우선순위다.

바. 관계성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한 순위로 생각하고 실천한다(고전 13).

사. 최선의 태도

우리는 모든 사역을 할 때 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통해 사역의 최상의 결과를 이루신다(롬 8:28).

아. 사역의 균형

우리는 다중지역교회를 적용하여 양적인 확장만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 의미있는 사역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질적인 성장도 추구한다(엡 4:12-13).

자. 계획성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계획 그 자체가 마지막은 아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응하는 한 방법일 뿐임을 기억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법과 환경에 민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4. 사역자의 역할과 책임

성공적인 다중지역교회 “센터빌 캠퍼스”를 위해서는 훌륭한 팀워크와 각자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주요 직분과 사역 지침서를 설명한다.

가. “센터빌 캠퍼스”담당 목사

새로운 지역의 교회 개척자들과 같은 수준의 능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캠퍼스의 팀 리더로 활동하게 된다. 캠퍼스 팀 리더로서 영적사역, 관계성형성, 조직과 시스템의 조정자, 본교회의 목회자 리더십 팀원, 캠퍼스의 심방 사역, 목회상담, 회복사역 등을 주로 담당한다.

나. 어린 담당 사역자

유치부와 유년부, 어린이 담당 책임자

다. 학생 담당 사역자

청소년 담당 사역자

라. 행정전담 사역자

목회자로 캠퍼스담당 사역자와 팀워크를 이루어 매일 매일의 캠퍼스사역의 행정적인 일을 조정하여 캠퍼스 담당 목사에게 보고 한다.

마. 마케팅 혹은 이벤트 담당 코디네이터

새로운 전도와 홍보를 위해 교회행사를 주관하며 캠퍼스 담당 목사에게 보고한

다.

바. 중보기도 팀 리더

사역 팀의 기도모임을 인도하며 주위의 기도 Support팀을 조직하여 기도사역을 인도하고 조정한다.

사. 새신자 영접과 훈련팀 리더

새로 개척하는 교회로 새신자 관리와 등록 교인을 동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5. 전략적인 접근

“센터빌 캠퍼스” 교회개척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안이 단계별로 발전해가는 전략을 설명한다.

가. 가장 먼저 왜 하나님께서 교회개척 사명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 교회개척이 복음 전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이 주요한 동기부여가 된다. 북 버지니아의 센터빌 지역은 제2의 한인 타운으로 불리는 곳으로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밀집되는 지역이다.

나. 적용하려는 다중지역교회를 통한 새로운 교회개척전략은 이 지역 한인교회들의 형편과 지역사회의 부름에 적합하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므로 시설과 사역공간의 부족으로 오는 교회의 문제점을 균형적인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확대와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 나가 한계에 다다른 한인 교계의 교회개척에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사역에 도전을 줄 수 있다.

다. 대상지역의 인구, 지역의 특성, 필요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 그러므로 본교회인 펄그림 교회와는 좀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한다.

라. 지역교회 창립일은 새로운 교회홍보와 새교회 이미지를 불신자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전략으로 활용한다.

마. 매스터 플랜을 만들어 시간의 흐름을 적어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중요한 이벤트 들을 전체교회 행사진행에 적용한다.

바. 대상지역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조사한다.

사. 시간표를 작성한다.

6. 사역대상지 연구와 분석⁹⁶⁾

“센터빌 캠퍼스”의 대상지역은 본교회인 필 그림 교회에서 15마일 떨어진 거리를 중심으로 한 센터빌, 매나삭스, 개인스빌, 헤이마케 지역으로 한다. 그 중 중심이 되는 지역은 제 2의 한인 타운인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센터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경 10마일로 한다. 사역대상의 중심은 종교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영적인 면에 어느 정도 관심도 있으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Korean-American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심나이: 35-40살

교육: 대부분 대학졸업

가족: 결혼, 자녀는 하나 혹은 둘, 연령 5-10살

부부가 직장생활, 대부분 전문직이나 자영업

수입: 가구당 연간 10만 불 이상 (2008년 이 지역 평균 수입-\$ 117,366)

고향: 타주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곳에 5-10년 정도 생활함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 30-60분

심리적 배경: 인생에 전환기에 있음 - 결혼, 자녀출산, 새 직장, 새로운 거주지.

그러므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종교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음

96) Virginia Baptist Mission Board, *Research Report* (2008), 40.

관심: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친구를 찾고 있음. 주위의 신앙인들 과거의 교회에 대한 경험이 교회에 한 대한 어느 정도의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 이나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일을 바랍. 특별히 자녀들에게 긍정인 신앙경험과 가치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음.

7. 창립예배(Opening Day)

새로 시작하는 “센터빌 캠퍼스”의 모습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부터 창립일까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까라는 질문에 대답하게 되는 해답을 실행하는데 주요한 지침이 된다.

가. 창립일은 2010년 부활절 주일로 첫 번째 공식 주일예배가 된다. 그날이 속한 4월은 창립준비달이 된다.

나. 창립예배는 50명의 사역자와 봉사자, 그리고 250명의 첫 방문자를 예상한다. 모두 300여명이 참석하는 주일 예배이다. 그 후 처음 3 개월 동안 매주 평균 주일예배 참석인원 200명을 예상하고 준비한다.

다. 창립일부터 10개의 셀 그룹을 가동하여 방문자들을 접촉하고 돌보는 사역을 시작한다(6개월 전부터 적어도 10명의 셀 리더를 세우고 훈련함).

라. 예배의 음악을 위하여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예배팀을 조직하고, 사역의 대상자의 취향과 문화에 맞는 찬양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 다양한 영상과 현대적인 미디어 기구들을 사용하여 사역 대상들의 문화적 코드에 적용시킨다. 점진적으로 6개월 후에는 예배를 9시 30분 예배와 11시 예배로 나누고, 주일 출석이 400명에 도달하면 토요일 예배를 계획한다.

바. 어린이 사역을 우선순위 사역으로 지정하고, 본교회의 어린이 담당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본교회의 봉사자를 일 년 동안 활용한다.

사. 청소년 사역은 본교회의 전담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많은 부분의 프로그램과 봉사자를 공유한다. 단 “센터빌 캠퍼스”에게 독자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은 새롭게 개발한다.

아. 성인성경공부를 위한 전통적인 주일학교는 없고 주일오후 선택적인 공부와 새교우 반은 매월 한번의 4시간씩 캠퍼스 담당 전임목회자가 실시한다.

자. 셀 사역의 강화를 위해 매주 셀 리더를 위한 수요일 모임에 적어도 2시간이 상나눔과충전 그리고 훈련을위한 셀리더 모임을 갖는다. 각 셀 모임은 매주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 갖는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사역을 확장한다.

(1) 최초의 셀 (리더십 팀)

지역담당 사역자와 셀 사역에 헌신할 팀들이 처음 셀을 시작하고 전도하여 셀을 확장한다.

(2) 초기 사역

전도활동의 열매에 따라 처음 분가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비 셀 사역자를 양육하고 그들을 다음의 셀 사역자로 세운다.

(3) 월별 비공식 예배 단계

얼마 후 2-4개의 셀이 세워지면 함께 정기적으로 축하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는 시스템을 형성한다.

(4) 공식적 예배단계

복수의 셀이 준비되고 예비 셀 사역자가 준비되면 이제 매주 모이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범 교회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항상 재생산의 원칙을 인식하고 셀 재생산에 힘쓴다.

차. 공식적인 수요 예배 모임은 없고 매일 새벽 기도회 모임을 갖는다. 그리고 기도회인도는 캠퍼스 전임 목사가 한다. 원칙적으로 주일 예배에 설교는 필그림 본교회

목사가 주로 담당하나, 필요에 따라 캠퍼스 목회자가 설교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만든다.

카. 공식 예배 후 다중지역교회 실행팀과 필그림 교회 담임목사, 그리고 캠퍼스 담당 목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 다중지역교회의 개선점과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행한다.

타. “센터빌 캠퍼스”의 개척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예배팀
- (2) AV와 미디어팀
- (3) 예배 Support팀
- (4) 영접과 환영팀
- (5) 전도팀
- (6) 마케팅과 홍보팀
- (7) 어린이사역 보조팀

8. “센터빌 캠퍼스”의 일차적 주요 사역

새로 개척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인 다중지역교회론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전략은 전도와 홍보 그리고 소그룹 사역이다.

가. 전도와 홍보

새로 시작하는 “센터빌 캠퍼스” 다중지역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불신자들을 회심시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다. 또한 현대 교회에 회의적인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심어주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을 전략적으로 감당하기위해 일차적으로 다음같은 이벤트 준비한다.

- (1) 가족들이 함께하는 행사(매월 마지막 금요일 가족과 함께 영화보기)
- (2) 나누는 날 (매 분기마다 새 교회의 비전과 꿈을 전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 (3) 세미나 (대상 그룹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주제-부모, 재정, 자기계발)
- (4) 주제중심 여름성경학교 (교회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차별화된 문화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 개발)
- (5) 가을 잔치 (세속적인 행사의 대안으로 많은 지역사회 단체를 참여시킴)
- (6) 부활절과 성탄절의 특별행사

나. 소규모 그룹사역

“센터빌 캠퍼스”의 1차 전도와 사역의 대상자들은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진정한 소속감을 추구한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개척초기부터 셀 사역을 체계화한다. 교회는 니콜라스 소그룹의 장점을 적용한다.⁹⁷⁾

- (1) 융통성을 추구: 핵심원리를 지키되 순서와 절차에 유연성을 더한다.
- (2) 인격적인 관계형성: 서로 헌신하고 섬기는 긍정적인 인간관계 지향한다.
- (3) 도전적인 작은 공동체: 불신자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진정한 대안을 소개한다.
- (4) 복음전파가 최우선: 모든 과정과 방법은 궁극적으로 복음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제 3 절 다중지역 교회개척 준비부터 창립까지 진행시간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 주요 행사를 시간대로 나누어 정리해본다. 필요에 따라 세부 계획도 첨부한다.

1. 준비부터 창립까지 주요 행사 시간표

2009년 5월 다중지역교회 “센터빌 캠퍼스” 사역자와 후원자 수련회(2박 3일)

2009년 5월 첫 번째 사역자팀 모임

2009년 5월 센터빌 지역 새로운 다중지역 교회개척을 위한 중보기도팀 구성

97) Nicholes, *Good Thing Come in Small Group*, 23-25.

- 2009년 5월 Master Plan 실행을 위한 마지막 보충 수정
- 2009년 6월 “센터빌 캠퍼스” 창립을 위한 일차적 창립 멤버 예비 모임
- 2009년 여름 캠퍼스 목사 선정/ 행정담당 목사/ 주요 직분자 임명
- 2009년 여름 센터빌 지역 불신자를 위한 교회 홍보와 전도 집회
- 2009년 여름 본교회(필그림교회)에서 세 지역교회(다중교회-센터빌 캠퍼스)후원을 위한 음악회
- 2009년 9월 이웃 전도를 위한 어린이/ 부모 세미나
- 2009년 10월 이웃 전도를 위한 부동산/ 유산 세미나
- 2009년 11월 이웃 어린이들을 위한 “Fun Night” 행사
- 2009년 12월 센터빌 지역에서크리스마스 특별 음악회 개최
- 2010년 1월 이웃의 Youth와 부모를 위한 세미나
- 2010년 2월 창립준비위원의 창립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점검 수련회(1박 2일)
- 2010년 4월 어린이와 부모들을 위한 부활절 특별행사
- 2010년 4월 창립예배

2. 단계별 점검

현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센터빌 지교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교회의 사역팀과 사역 후원팀과 접촉하며 기도하는 단계에 있다.

제 8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북 버지니아의 한인침례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개척과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중지역교회 전략을 제시한다. 그 적용 대상은 일차적으로 북버지니아에 위치한 한인 중심의 주택가 버크에 위치한 필그림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지교회에는 제2의 워싱턴 지역 한인 타운인 센터빌을 목표로 한다.

제 1장 서론에서는 교회성장의 둔화와 개척교회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직면한 교회들에게 교회개척과 성장의 활성화를 위한 새롭고 구체적인 대안적 전략으로서 다중지역교회를 제시하였다. 다중지역교회론은 현재 많은 대형교회들이 교회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제 2장에서는 교회를 성서적으로 바로 이해하기 위한 교회의 신학적 정의를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보았다. 다음은 교회의 대표적 특성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교회의 주요 기능도 신학적으로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교회개척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성경에서 본 초기의 개척교회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며 교회개척의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했다.

제 3장에서는 교회 개척의 성경적 관점에서 얻은 이해를 기초로 교회개척의 실질적 원리들을 연구한다. 실제 사역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관점으로 살펴본다.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중보기도 팀을 구성해야 할 것과 교회 개척자로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전의 중요성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대상 그룹과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연구하여 이에 맞는 교회를 개척하여야 성공적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적인 교회개척전략으로 개척자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를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이해하며, 필요한 전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들을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회 개척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그룹을 모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도력 개발을 위해서 리더의 자질과 역할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그룹의 이해와 구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마스터플랜을 짜는 방법과 교회개척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제안함으로써 교회 개척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다중지역 교회론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집중하였다.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연구된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나 신약의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 그 모형을 살펴보았다. 크게 이론과 실례 그리고 원리를 적용한 교회개척의 가능성을 보았다.

제 5장에서는 다양한 실천적 이론과 원리를 알기위해 문헌을 연구하고 몇 개의 대표적인 다중지역교회들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북 버지니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다중지역교회 개척전략을 정리하여 보았다.

제 6장에서는 북 버지니아 지역의 교회 상황들을 연구하면서 교회개척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 자립 개척교회와 개척자를 관찰하고 분석했다. 특별히 다중지역교회전략을 전략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았다.

제 7장에서는 다중지역교회론을 지향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논했다. 그러한 의미로 이 장에서는 북 버지니아 지역에서 다중 지역 교회를 시작할 좋은 모델이 되는 한 중형교회를 선택하여 교회 개척의 준비 단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았다. 서론에서부터, 목적, 지침원리, 사역자의 역할과 책임, 전략적 접근, 사역대상지 연구와 분석 그리고 창립예배까지 구체적이며 전략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았다.

제 2 절 제안

필자는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다시한번 교회 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회개척에 대한 큰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개척 전략가로서 오늘의 현실은 그다지 밝은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교회 개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21세기의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시대에 개척되는 교회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필자는 이 시대 교회의 궁극적 선택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 앞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다중지역교회를 연구하였다.⁹⁸⁾ 또 다른 한편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다중지역교회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부정적 시각을 한국 교계의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살펴보았다.⁹⁹⁾

그러나 필자는 다중지역교회사역을 통한 교회개척은 도전적이고 고무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교회 문화적 환경을 바꾸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전통적인 교회개척방법을 보완하고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이 교회개척의 절대적인 한 가지 모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도전해 볼 가치가 충분한,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완하면 교회개척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¹⁰⁰⁾ 이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미주의 한인 중형교회에서도 각 교회의 현실에 맞는 성공적인 다중지역교회개척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본 연구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실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이 모델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다.

성경적인 교회개척의 당위성으로 보아 교회개척은 어느 시대에도 필요하지만, 과거의 개척자 한 사람이 홀로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준비된 개척자가 필요하고 좋은 개척후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대

98) Ferguson, “또 하나의 대안, 재생산하는교회,” 70-71.

99) “한국 대형교회 지교회 설립 현주소,” *크리스찬투데이*, 2003년 10월 28일자, 교회면.

100) Glenn Lucas, “Daughter Church Planting: Multi-site Approach,” *Center for US Mission*, 6 Dec 2005, 40.

적 흐름을 보아야한다.

교회개혁은 개교회 차원을 넘어 교단이나 신앙공동체가 운명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이 교회개혁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줄 수는 없으나, 교회개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변화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1.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제자, 1997.
-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자*.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 명성훈. *교회 개혁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사, 1997.
- _____. *교회 성장과 리더십*. 서울: 서울서적, 1992.
- _____.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4.
- _____. *뒷문을 막아라*. 서울: 크레도, 1995.
- 박 건. *멘토링 목회 전략*. 서울: 나침판, 1999.
- _____. *현장에서 본 새들백 교회 이야기*.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1999.
- 신성중.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3.
- _____. *외. 성장하는 교회에는 성장원리가 있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5.
- 오정현. *새 천년 사역의 패스파인더*. 서울: 두란노, 2000.
- _____. *열정의 비전 메이커*. 서울: 규장, 1998.
-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도서 출판 두란노, 1998.
- _____. *제자 훈련 열정 30년*. 서울: 도서 출판 두란노, 1999.
-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 1998.
- _____.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장학일. *교회의 체질을 바꿔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정인수.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십*. 서울: 두란노서원, 2004.
- 최상태.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판사, 1996.
- _____.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서원, 1999.
- 한 흥. *거인들의 발자국*. 서울: 두란노, 2000.
- 허 건. *한국 침례교회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2. 번역 서적

- Anderson, Leith. *21세기를 위한 교회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황성철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 _____. *교회를 향한 제 3의 물결 (Dying for Changes)*. 김철직 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 Barna, George.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The Frog in the Kettle)*. 탁영철 역. 서울: 배다니 출판사, 1993.
- _____. *교인에게 친숙한 교회 (User friendly Churches)*. 최대형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 _____. *교회성장의 침체를 극복하라 (Turnaround Church)*.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_____. *성장하는 교회의 9 가지습관 (The Habits of Highly Effective Churches)*.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_____. *팀 리더십 파워 (The Power of Team Leadership)*. 홍영기 역. 서울: 청우, 2003.
- Beckham, William. *제 2 의 종교개혁 (The Second Reformation)*.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0.
- Blackaby, Henry. *영적 리더십 (The Spiritual Leadership)*.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 Clowney, Edmund P. *교회 (The Church)*.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 Colson, Charles. *이것이 교회다 (The Church)*. 김애진 외 역. 서울: 충성사, 2000.
- Donahue, Bill. *윌로우크릭 교회 소그룹이야기 (The Willow Creek Guide to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s)*. 송영선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1996.
- George, Carl.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 _____. *교회성장한계 이렇게 돌파하라 (How to Break Growth Barriers)*. 최예자, 유진화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1996.
- George, Carl F., and Robert E. Logan. *리더쉽과 교회성장 (Leading & Managing*

- Your Church*). 송용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 출판부, 1993.
- _____. *교회성장의 한계 이렇게 돌파하라 (How to Break Growth Barriers)*. 최예자, 유진화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1996.
- Getz, Gene. *현대교회 성장학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Hull, Bi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The Disciple Making Church)*. 박영철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3.
- Hybels, Lynne, and Bill Hybels.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Rediscovering Church)*. 김성웅 역. 서울: 도서 출판 두란노, 1997.
- Khong, Lawrence. *신사도적 셀 교회 (The Apostolic Cell Church)*.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2001.
- Kraemer, Hendrik. *평신도 신학과 교회 갱신 (A Theology of the Laity)*. 유동식 역. 서울: 평신도 신학 연구소, 1994.
- Logan, Bob. *교회개척론 (Church Planting)*.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04.
- Macchia, Stephen 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Becoming A Healthy Church 10 Characteristics)*.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 Malphurs, Aubrey. *21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Planting Growing Chur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6.
- _____. *침체된 교회 부흥전략 (Advanced Strategic Planning)*. 남성수 역. 서울: 아가페, 2000.
- Maxwell, John.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 1997.
- McGavran, Donald A. *교회 성장 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87.
- Neighbour, Jr. Ralph. *셀 목회 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Now?)*.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 Nicholas, Ron.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

- 신재구 역. 서울: IVP, 1985.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정진우, 오태균 역. 서울: 도서 출판 NCD, 1999.
- Smith, Oswald J. *구령의 열정 (The Passion for Souls)*.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Snyder, Howard.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The Problem of Wineskin)*.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_____. *21세기 교회의 전망 (Foresight)*. 박이경, 김기찬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 Stevens, R.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The Equipper's Guide to Every-Member Ministry)*. 이철민 역. 서울: IVP, 1995.
- _____.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The Equipping Pastor)*.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 Towns, Elmer L. *성장하는 교회 무엇이 다른가 (10 of Today's most Innovative Churches)*. 김흥기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4.
- Wagner, Peter. *교회개척 이렇게 하라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서로사랑편집부 역. 서울: 서로사랑, 2002.
- _____. *영적 전투를 통한 교회 성장 (Confronting the Power)*. 나겸일, 홍용표 역. 서울: 와그너 교회 성장 연구원, 1997.
- _____. *교회 성장 원리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Warren, Rick. *새들백 교회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출판사, 1997.

3. 영문 서적

- Barna, George. *Church Marketing*. Ventura: Regal Books, 1992.
- Bruce, F. F.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73.

- Chaney, Charles L. *Church Planting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1991.
- Cheyney, Tom, David Putman, and Van Sanders. *Seven Steps for Planting Churches*. Alpharetta: NAMB, 2003.
- Feeney, James H. *Church Planting by The Team Method*. Anchorage: Abbott Loop Christian Center, 1988.
- Gene, Mims. *Kingdom Focused Church*.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3.
- Hadaway, C. Kirk. *Church Growth Principles: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Nashville: Broadman Press, 1991.
- Hendricks, Howard. *As Iron Sharpens Iron: Character in a Mentoring Relationship*. Chicago: Moody Press, 1995.
- Icenogle, Gareth W.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4.
- Ludwing, Schmidt K.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65.
- McGavran, Donald A.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90.
-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Church Planter Mentor Training*. Alpharetta: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1999.
- Schaller, Lyle E. *From Geography To Affinit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4. 논문 및 잡지

- 김용수. “늘어가는 한인교회수.” *Korean Monitor*. 2004년 10월호, 42.
- 박은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패러다임.” *목회와 신학*. 2002년 4월호, 63.
- 송인규. “평신도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한국교회.” *목회와 신학*. 2002년 7월호, 212-219.
- Ferguson, David. “또 하나의 대안, 재생산하는 교회.” *목회와 신학*. 2004년 2월호, 70-77.

Schaller, Lyle E. "Giving Christ Away Today." *Net Results*. January 2003, 16-17.

Vita of
Sang Yun Shin

Present Position:

Church Planting Strategist, Virginia Baptist Mission Board, Richmond,
Virginia.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30, 1957
Birthplace: Seoul, South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Esther Kyung Shin
with three Children, Grace, Sophia and Daniel
Home Address: 10855 Grovehampton Court
Reston, Virginia 20194
Denomination: Southern Baptist Convention
Ordained: April 20, 1989

Education:

B. A.: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irginia, 1986
M. Div.: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t. Worth,
Texas, 1990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lifornia, 2009

Personal Experience:

1990-1996 Senior Pastor, Shady Grove Korean Baptist Church,
Rockville, Maryland.
1997-2007 Pastor, New Hope Baptist Church (First Baptist Church
of Annandale) Annandale, Virginia.

2001–Present Adjunct Professor and Board of Trustee, Washington Baptist University, Annandale, Virginia.

2007–Present Church Planting Missionary, Virginia Baptist Mission Board and North America Mission Board, Richmond, Virginia.